朝鮮日報
第二夕刊
三十一日(水)
本紙朝夕刊十二面

再開할第七十五議會
政府、政黨準備完了
明暗交流의今議會는國民關心의的
首外相演說後質問戰

【東京電話同盟】第七十五再開議會는 一日로써 開幕되게되엇다 十日間의休會延期를하여 經濟施政方策의確立에 努力하고잇던政府는 이미緊急閣議에서 前內閣排除의決定的要因이던 國內經濟諸問題에對한 對應策의大略成案을 어든後 再開議會劈頭에 잇슬 米內首相의一般施政方針演說과 櫻內藏相의財政方針演說을 正式決定하고 또 有田外相의 外交方針演說의 成案도 三十一日外相이 宮中에參內內奏하여 手續을完了하기로되어 政府의 再開議會에 對한 準備는 整理됨에 이르럿스므로 政府는 三十一日午前의 臨時閣議와 同日午後의 政務官會議에서 初議會에 臨할 政府의 態度에 關한 最後的 打合을하엿다 一方 이에 對하여 政黨側은 三十日 政友兩派大會를 비롯하여 民政黨은 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上野精養軒에서 黨大會를열고 宣言과 總裁演說로써 再開議會에 臨할 黨의 態度를 闡明하고 또 社大黨은 同日午前十時부터 時局同志會는 午後一時부터 各各本部에 代議士會를열고 對議會態度를 正式으로 決定하고 重要法案의 審議는 今議會에 臨할 基本的態度를 完備하엿다 이리하여 再開議會는 貴族院은 午前十時 本會議를열고 劈頭米內首相의 施政演說, 有田外相의 外交演說及淺間丸事件報告, 陸海軍兩相의 戰況報告에 이어서 一般質問에 들어가 第一陣으로 研究會의 大河內正敏子가 오래간만에 登壇하고 또 衆議院은 午後一時부터 本會議를열어 首相外相의 演說에 이어 櫻內藏相의 財政演說, 軍部兩相의 戰況報告가 잇슨後 一般質問에 들어가 第一陣으로서 民政黨의 小川鄕太郎氏가서게되엇다

質問第一彈은무엇
議會先陣三氏의意氣

【東京電話同盟】 드디어 一月一日 第七十五議會는 再開한다 석냥과 木炭으로넘어진 阿部氏에 代身하여 黑潮로 鍛鍊한長身偉軀의提督 米內氏가 颯爽히登場하엿는데 不足物資는 依然하며 더구나 一滴의비도 안오는蒼空을 바라보고잇는中에 電氣도不足하게되어왓고 民衆의 소리를 代表할 代議士諸公인만큼 今年은 龍年으로 구룡을이르키어 佩譯의 論이 잇슬것이다 衆議院에서 第一論陣을 펴는것은 民政黨으로 小柄溫顔이나 實로 고초가튼小川鄕太郎博士、政友會久原派로부터는 大口喜六氏이 설리인바 소리는 나즈하나 極히 銳利하게 百三億의 豫算을 誕生시킨 櫻內藏相에 逼迫할것이다 社會問題를 들고일어설이는 半生의苦鬪에 口角까지 하게된 社大黨 川上丈太郎氏이다 議會再開를아프로 二日 三十日夜 先陣인三氏에게 今議會에서 國民을爲하여 무엇을 解決하여보겟는가고 그抱負를 듯기로하자

軒昂한 大口氏

政友會久原派、大口喜六氏는財政經濟問題의 權威로 茲三稼亭大會가 終了한때를 訪問한즉 술을마서 얼굴을붉힌 大口氏는 매우 氣分이조라 그저내가 하기로되엇는데 그러나 아직 今後 천천히 黨의 사람들과 相議하여보지안으면 말할수업다…大口氏는 이러케 우스면서 어느사인지 어려운 財政經濟問題를 論하기 始作하엿다

大端한 物資不足인데 昨日도 大阪에 사람을보내서 石炭과 電氣에關하여 調査하여 달라 하엿는데 實로 놀랄만한 狀態이다 物價도 表面九·一八停止令으로 抑壓되어잇스나 事實은 秘密市勢와 品質의低下로 아무所用도 업게되엇다 通貨는 자꾸만 膨脹하고 國民生活은 더욱 不安하게되어온다 여게까지가면 큰 破綻이 닥처올것이다 그래서 이에對한 政府의 對策如何라는것은 나뿐만아니라 國民의 누구누구할것업시 今議會에서 第一먼저이야기하여 보고시픈일이다 大體 至今까지政府의 財政經濟政策이라는것은 모두應急策이엇다 彌縫하여가는것은 長期間에 亘하여 無理라고 나는처음부터 新政策을 樹立하지안흐면 안될것이라고 말하고잇는데 阿部內閣은 無爲無策中에 退陣하여버렷다 昨日도 櫻內氏와 藤原氏와 만나서 나는 하여줄것만하여주면 얼마던지 協力하겟다고 말하엿다 구석에만파뭇처잇서서는 아무것도 안된다 해보아서 어들수잇는것은 엇는다는것을 생각하지 안흐면 안된다 至今도 石炭가튼것이 第一重要하다 通貨偏重의 問題에 이르러서는 議論이 좀

第一回日伊文化連絡協議會

昨年三月廿三日 成立된 日伊文化連絡協議會 第一回會合은 一月二十七日 午後四時外務省次官官邸에서 열리어 日伊文化交換에對하여 歡談하엿다 寫眞上은 向하여左側으로부터 세째가 原信子、藤原義江、伊大使、三浦環、關屋敏子의諸氏

리氏日本實力의過少評論을警告

【紐育三十日發】米國의著名한政治評論家월다·리프맨氏는뉴욕헤랄드·트리뷴紙三十日附紙上에日米通商條約廢棄에關한論文을寄稿하여日米通商條約廢棄의重大性에對한米國國民의認識不足을指摘하는同時에日本의實力을過少評價하지말라는警告를主張하여米國一般이 對日强硬態度를 極히 注目을 끌고잇는데이마큼 리프맨氏의所論은 다음과갓다 米國議會及國民의大多數는 勿論이요 바란바크議員은 昨年七月自身이 提出한 決議案中에 말하엿슴에도不拘하고 日米通商條約廢棄의眞意를 認識하고잇지안라 萬若米國이 今後더욱經濟壓迫을强化하면 그結果日本이支那로부터 退却하리라고생각하는것은 큰 誤解이다 米國은 日本의實力을寡少히評價하고잇다 왜그러냐하면 日本은 現在米國만이아니라 米國에 加擔하는 者의勢力까지도 極東으로부터 驅逐하려고하고 잇는데 다시米國及其他諸國을 孤立化시키기 爲하여 獨蘇兩國과 聯合하게 될것이다 이리하여 日本은 日米戰爭을回避하면서도 米國을完全히 孤立化시키니 마치 米國으로하여금 日獨蘇三國의東太平洋에서의 絕對的地位 또는 日本과의戰爭은 條件이極히 困難하다는것을 認定하지 아니치못하게만들것이다 왜그러냐하면 日獨蘇三國은 萬若聯合國이 極東으로부터 追放되거나 或은 歐洲에 敗北하는것을 方하여 無力化하게되면 米國으로서는 大西洋、太平洋에서의 權益을同時에支配하고確保하는것이不可能하게될것을알

헐長官對日禁輸反對
記者團會見에서間接表示

헐 約束을하지아니하엿다 (寫眞은 헐長官)

【華盛頓三十日發同盟】헐國務長官은 三十日新聞記者團과 의會見에서 『前日上院外交委員會로부터 對日禁輸에對하여 國務長官의 意見을求한데對하여 長官은 意見을 提出하엿는가』라는質問이잇슨데對하여 헐長官은 『書面의形式으로는 아즉回答을하지아니하엿다』고對答하여 이미口頭로는 外交委員會에 意見傳達한 事實을間接으로 肯定하엿다 即 이리하여外交委員會側으로부터의 漏說에따르면 傳하는바와가치 헐國務長官은 對日禁輸를反對한다는 說을反證하는것이라고 觀測되고잇다 다시記者團으로부터의 『長官은 對日禁輸問題討議의 上院外交委員會에 出席하겟는냐』는 質問에對하여 헐長官은 다음과가치言明하엿다 目下의形便으로는 이問題가 上院外交委員會에서 어떠케取扱될지모르나 적어도 現在로는 上院外交委員會에 出

聖戰目的貫徹엔
國民의緊張이必要
下山朝鮮軍報道部長初任談

지난번에 興亞院蒙疆聯絡部司令官으로 轉任한 朝鮮軍報道部長으로부터 下山琢磨少將은 三十一日午前十時半부터 約한시간동안 朝鮮軍司令部에서 朝鮮軍擔當記者團과會見하고 다음과가튼 여러가지時局에對한 이야기를 한뒤에 記者團에對하여 아프로의協力을 要望하엿다 진즉 赴任하엿스나 그동안身邊으로 여러가지 맛나지 못하고이제처음으로 맛나게된다 支那事變도 이제四年째 들어섯스며 또歐洲에는 戰亂이擴大되고잇서서 이에따라 民衆의生活에影響도만커 支那事變은 皇軍將士의奮鬪로 만흔戰果를내어서 支那事變處理도 着着進行되어가는 中인데 日前에는 드디어支那에서는 汪政權成立에 對한 準備會議가 잇섯고 또 우리日本에서도 將次 慶賀스러운 紀元二千六百年의 記念盛典이잇기로되엿다 그러면 國內情勢를 한번살피보면 支那事變이 생긴지처음 一、二年間은 電車안에서나 길거리에서나 千人針을 손에들고 다니는 婦人이 만핫고 病院가튼데도 戰傷兵을 慰問하는사람이 만핫스며 第一線將兵에게보내는 慰問袋도 만핫는데 最近에는 그런일이 別로업다 이에外國과 通商關係等 國際問題도 잇고 支那事變도아직 蔣介石軍의冬季攻勢에對한 反擊戰을猛烈히하고잇스므로 國民은한거름 더나아가서 緊張하지안흐면 안될일이다 그러치만은 實相은 東京、大阪은 勿論 京城에서도 百貨店에는 언제든지 滿員의盛況을

英獨大空戰

【倫敦三十日發同盟】英空軍省三十日 午後發表 三十日午前、午後二回에 걸처 東海岸方面에서 獨空軍部隊와 我戰鬪機와의 間에 空中戰이잇섯는데 이때 敵機一機를 擊墜하엿다 이것은 二日間連續한 大規模的의 것이엿는데 空襲途中敵爆擊隊는 잉그란드 南海岸에서 小型汽船 쟈一씨ー마스에서 小型汽船 砲艦九一○噸을 爆擊하고 다른一隊는 스코틀란드海岸의 某海上空에 飛來하여 低空偵察을 하엿다 그리고 다시다른一隊는 켄트海岸의 陸地上을 旋回하고 飛去하엿다

遞信豫算槪要

昭和十五年度總督府特別會計豫算綱要는 三十日總督府로부터發表되엇는데 遞信局豫算은 總額八千七百十二萬五千圓으로 그中遞信局關係의 主要한것을 列擧하면 다음과갓다 (單位圓)

▲航空에關한經費

航空補助費約	五五九、四八六
民間航空獎勵費	四五○、○○○
	七○、○○○

▲航空施設에關한經費

	一二二○、九二五

▲航空無線施設費

京城一靑島線開設에伴한補助費	五六○、六七五
土地買收費	一二四、七五○
航空無線通信施設費	三○四、○○○
局舍費	一○四、○○○
其他	

▲遞信事業施設에關한經費

職人에 伴한設備費	一、一六四、六六三

國際電氣通信會社에 對한交付金 六五○、○○○
鐵道郵便車擴充費六三 五五○、○○○
鐵道開通에依한遞送便의 開始에伴한經費 一二六、○○○
普通小包實施에伴한經費 六六、○○○

▲電信電話에關한施設費
電信電話改良整備에伴한維持費 三二九、四六六

其他

▲航路補助에關한經費
增設電話處分
命令航路補助에對한 經費 九八九、○○○

▲航路標識建設及改良費
理藝新設費 其他整備改善에要하는經費

▲遞信官署費 多獅島方面信號所通信士養成所費入費 七七、二○九
中央電信局敷地 買入其他小新營費

京畿、慶南、咸北에
道防護課新設

時局下 半島의大空을 지키는 防護施設은 大陸兵站基地의 面目을 鞏固케하여 明年度에二百萬圓을計上 警防團의 擴充强化 其他 全面的으로 各種施設의强化를 企圖하기로 되엇는데 警務局에서는 이機運에 卽應하여 警防行政機構의 大擴充을斷行하고 그經費 三十六萬八千五百餘圓을 計上하엿다 이에따라 現存한警務局防護課를 中央指令部로서 새로 全朝鮮에 警視三名警部十三名 警部補四名(羅津警查包含) 巡查四十一名을 配置하고 京畿、慶南、咸北三道에는 防護課를新設하는外에 各道가모두 全面的警防의 陣容을 整備하고저努力하기로되엇다

淺間丸事件
英依然友好解決要望

【倫敦三十日發同盟】英政府의淺間丸事件에 關한正式回答은二月一日豫定으로 確聞되는데 체임벌린首相은 三十一日國防委員會의 午餐會에서 演說로特히 日英兩國關係에 言及하여友好關係의促進을要望할方針이라고傳한다

英外相會談
重光大使와

【倫敦三十日發同盟】東京에서는 有田크레기會談과 呼應하여 重光大使는 三十日午後三時 英外務省으로 할리팍스外相을訪問、淺間丸事件에 關하여 約半時間에걸처 隔意업는 意見交換을하엿다

獨外交遂方向轉換
對佛攻擊의獅子吼
黨施政記念祭日의히總統演說

히 總 統

【伯林三十日發同盟】히틀러總統은 三十日午後八時부터 스포츠파라스에서 擧行된 나치스黨施政七周年記念에 際하여 一萬五千의黨員을 아페두고 約一時間에 걸처 演說하엿다 이때 히틀러總統은 英佛의戰爭手段에 矢를돌리어 『英佛은 나치스主義를撲滅시키려고 하고잇는데 黨마져 余의三者團結은 强固하다』라고 하고잇는데 이떠러지게 하겟다고 斷乎한決意를 表明하엿다

通常議會開會等事件의 例도잇서히틀러總統의 臨席은 最後瞬間까지 極秘에附하여 三十日夕刻에이르러 비로소發表되엇는데 會場을 經戒도、例年마다의 嚴重을極하엿다 이날밤히틀러總統은 沈默을깨트리고 語調도 銳利하게攻擊의 論戰을展開하여 『英佛은 나치스 論戰을展開하여』 近新聞도最近兩三週間來戰의中心을佛國에轉하여 달리되에는 相에 集中非難을 퍼붓고잇는때 伯林外交界는 獨逸의이런方向轉換으로보아 獨逸은 從來의 對佛協調政策을 버리고 英佛無差別攻擊의 方針을 決定함에 이른것으로보고잇다

獨逸은從來英佛 兩國에 對한論難은 히틀러總統은 一方에는 그날 먹을거리가 업서서 쩔쩔매는 사람도 만타 또物資가 漸漸不足함을 自覺하고 돈잇는사람들은 자꾸사서모두으며 이에따라 奸商한商人들도 暗中活躍을하고잇다 말하자면 人心이 더惡化되어잇는 現象이다 이런反面現象은 어떠한

電力調整令發動
三十日閣議에서決定

【東京電話同盟】渴水와 石炭不足이伴한 電力飢饉對策으로서 政府는 드디어 電力調整令의 發動을 決意하고 三十一日 臨時閣議에서 藤原遞相으로부터 右發動理由에關하여 說明하고各閣僚의 諒解를求하여 이를決定하엿다 一日 遞信省告示로써發表하여 오는十日부터 實施키로되어 實施區域은 渴水送電에 가장 마히 制限을바든 關西의 最高平均制限率은 三割五分이다

各派勢力分解

【東京電話同盟】三十一日 現在의 貴族院及衆議院各派의勢力分野는 如左하다(兩院 事務局調査에依함)

▲貴族院

皇族	御十六方
研究會	百六十二名
公正會	六十八名
火曜會	四十五名
同和會	三十五名
交友俱樂部	三十二名
同成會	二十三名
無所屬	三十四名
合計	四百十五名

▲衆議院

民政黨	百七十四名
政友中島派	九十七名
政友久原派	七十一名
社會大衆黨	三十四名
時局同志會	三十二名
第一議員俱樂部	二十二名
政友正統派	十一名
無所屬	七名
合計	四百四十八名
(欠員十八名)	

敎科調查委員會

【東京電話同盟】國民學校敎科內容調查委員會總會 第二日은 三十日午前九時三十分부터 文部省에서開催 國民學校敎則案原案에關하여 審議하고 各委員으로부터 意見開陳이잇슨後 午後三時敎會하엿다 第三十一日은午前九時부터續開하고 總會를終了 各敎科別의 分科會에들어갈터이다

具體的政策例擧
現政府를鞭撻
政友久原總裁演說要旨

【東京電話同盟】政友會久原派의 黨大會에서의 久原總裁演說要旨는 다음과가다 滿洲及北支、中支의現地情況을 觀察하여 滿洲國中華民國도 또한 國策遂行中이다 日滿支三國의提携로 防共을 實行하고 新政權의 意義는 매우重大하다 더욱이 米內內閣의 組閣에 잇서 我黨은 閣僚를 派出하여 이를 支援하기로되엇는데 생각건대 現下時局은 누가施政의 當局者가되던지間에 吾人의 提唱하는 政策을 實行하지 안는限 참된時局安定은 期하지못할것이다 고로 또한國運의隆昌에 貢獻하지못하리라고 생각한다 米內閣은 기괴 時局에 비추어 大政奉公의 至誠을다하여주기 바란다

辭令

(一月三十日發令)

命 司法官試補(各通)
咸興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務修習
柳 憲 烈
吳 聖 德

命 司法官試補(各通)
大邱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務修習
森 脇 薰
阿 部 季
野村喜兵衛
高 在 錦
尹 鍾 大

命 司法官試補(各通)
全州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務修習
山本 光郎
陳 瑩 夏
伊知地庄八
豊永 泉
李 根 昌
金 鍾 浩

命 司法官試補(各通)
新義州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務修習
林 敵 蘭
鄭 暢 瑩
宮本 一郎

命 司法官試補(各通)
平壤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務修習
神谷 健司
姜 東 鎭

命 司法官試補(各通)
光州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務修習
武村啓太郎
遠藤 良平
金 占 碩

命 司法官試補(各通)
釜山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務修習
大津 淺吉
金 昌 模
靑木彦次郎
富澤 明孝
鄭 潤 煥

命 司法官試補(各通)
京城地方法院及同檢事局에서事務修習
總督府理事官 望月 次郎
總督府道理事官 前田 貞俊
總督府道警視 境 淸次
朝鮮公立中學校敎諭 鈴木駿太郎
朝鮮公立高等女學校敎諭 吉浦 高堅
同 橋本 正純
依願免本官(各通)

八面鋒

◇ 抑留獨逸人을 引渡하면 英國의 威信問題라고 버틴다。
◇ 제威信때문에 남의威信을損傷하는法이 어디잇소。
◇ 石炭飢饉、電力不足 圖書室等 海關相이 政府에注意。
◇ 注意쯤으로 簡單히 解決되지안코니까 걱정。
◇ 明年度 總督府豫算總額은 勿驚八億三千七百萬圓。
◇ 커가고 자라나는 朝鮮의살림사리를反映한것 이땅에福利가 增進될지어다。
◇ 公定價格도 九·一八價格보다 비싸게 決定될것이 만흘것가래서 苦悶。
◇ 엄청나게 비싸게申請하는때문에 公定價格은 難産斷念。
◇ 어찌하면 適正價格이 物價問題를 解決할까 低物價政策에 背馳아닌가를期하라。

두통에 노-신 테-린
부인병 不眠症 船車의멀미 眩暈 宿醉 감기 心臟衰弱 神經衰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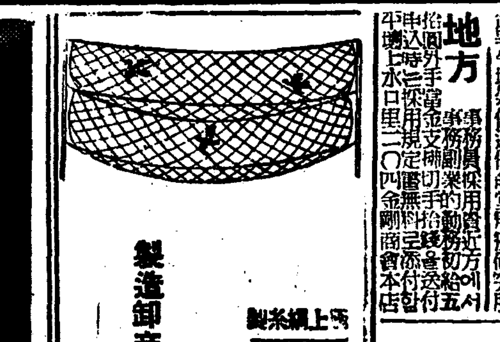
定價 二十錠 三十錠 五十錠 百錠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 總代理店 株式會社 新井藥房
北鮮總代理店 株式會社淸津新井藥房 淸津府浦項町(新驛前)
東京市小石川區武島町三三 製造元 中村滿治商店

古河合名會社 麻種分配機關
山東農園麻種部

高木貴金屬店 京城本町一丁目 イヤモンド專門

中古樂器買入 ピアノ・オルガン 蓄音器 其他 京城明治町一丁目

朝報案內
生徒募集 湖東商業學校
월경
痔疾
地方



製造卸商 海鮮商會 京城府黃金町四丁目

大歷史書 湖岩全集 朝鮮日報出版部

不思議なヴイナス

性格名優…ミイレユ本格主演
主演 若 劇
日本映畫貿易・丸果映畫社提供

006399

靑少年의雇入을制限 勞務資源偏在防止

時局과無關聯한會社工場商店에는老人과女子를使用하고 壯丁은時局産業으로動員

【靑少年雇入制限令 來九月一日實施】

전시생산력확충을 적극적으로 도모하기위하여 총독부에서는오는구월일일부터 청소년고입제한령(靑少年雇入制限令)을 실시하기로결정한후 내무국사회과에서 방금그준비에 분망중이다

이청소년고입제한령의 내용인즉 시국산업 평화산업을 물론하고 십육세이상사십세까지의남자를 고용하는경우에는 반다시 관할도지사의 인가를받지안흐면 안되는데 만일이에위반하면 국가총동원법에 의하여상당한 벌금또는구류에처하게된다

이와가치 청소년의 고용을제한하는 까닭은 시국관계산업에 대하여 노동력을 조정하여 생산력확충에지장이업도록 하고자 노무자원(勞務資源)의 편재(偏在)를방지하라는것이다 요리점, 음식점「카페」백화점, 잡화상, 여관등시국과관계가업는 방면에는 여자나노인을 고용하도록하고 될수잇는대로 청소년은 시국산업에돌려서 고용하도록하라는 방침이다 오는사월일일부터 이것을실시하기로결정된 내지에서는 청소년 여자까지 고용을제한하여 평화산업방면에 젊은여자를 채용하지못하도록 하는것은 물론이오 예기, 창기「카페」여급, 여관하녀등도 젊은여자는 채용하지못하도록금지하기로되엿스나 조선에서는 아직 그러한 제한에서 제외하기로되여 가유여자의 일반세를부르게되엿다

女子는除外 內務局 林社會課長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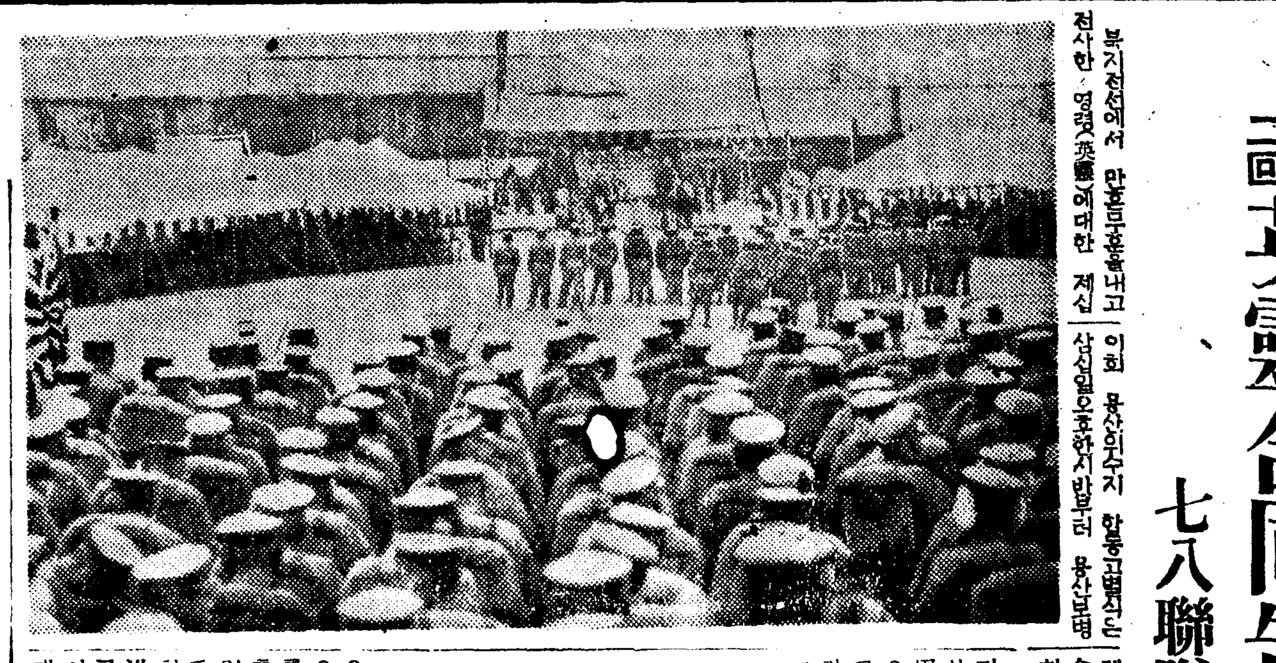
이에대하여 총독부임사회과장(林社會課長)은 다음과가치말한다

시국산업의생산력확충에 만전을기하고자 조선에서도 오는구월일일부터청소년고입제한령(靑少年雇入制限令)을실시하기로되엿다 요리점 배화점 음식점 여관 동시국과관계가업는 방면에는 청소년을 고용하지못하도록 제한 하게될터이다 이런방면에는 노년이나 중년노인을사용하여도 아모상관이업는것이다

그리고 도조선은내지처럼 여자까지 청소년고입을 제한하지는안는고로 시국과 관계업는방면에는 여자를사용해도 조흘것이다 조선은군수산업기관이 그다지 만치안흘뿐아니라 남자청소년이 비교적내지보다 넉넉하므로여자는 제한하지안키로되는것이다 내지에서는제한령이실시되는사월일일부터는 젊은여자가 예기 창기 카페여급 여관하녀등의 직업까지도 전부금지하기로될터이나 조선은여러가지사정이달러서 그러케하지안흘방침이다

第十二回 英靈合同告別式

七八聯隊營庭에서嚴肅執行



북지전선에서 만흔무훈을세우고 전사한 영령(英靈)에대한 제십이회 용산위수지 합동고별식은 삼십일오후한시반부터 용산보병제칠십팔연대영정에서 군관민다수의 참석으로 신식으로 엄숙히집행하엿다

먼저 수불(修祓)과 초사(招詞)의식을 거행하고 시재주(市濟主)의 축사(祝詞)와 제주(祭主)사령(七田)중장의 제문낭독이잇고 다음으로 남총독, 중촌군사령관, 고교경성부윤의 조사(弔詞)와내외각지로부터온 조전피로가잇섯다 그리고서 재주와제주의 옥관봉전(玉串奉奠)이잇고 그다음으로 관계각부대장과 유족일동의 옥관봉전이잇섯다 다음으로 남총독, 중촌군사령관, 가등(加藤)소장 참모총장대리 이견(一見)대좌 교육총감대리 송곡(松谷)대좌 진해 요새사령관대리 흑목(黑木)해군대좌 경무국장대리 송택(松澤)외사부장 이왕직장관대리 이항구(李恒九)조 ... 대표 박서양(朴瑞陽)부판 ... 미(?)헌병사령관 전선송 ... 대리전전(前田)부윤판 ... 대표아부소장 각도지사대표 각자 (甘蔗)경기도지사 경성부민대표 ... 씨와 일본적십자사대표 송려모표 제화교대표 남대표장 교부인회대표 부인납여자제단체대표등의 옥관봉전이잇섯다 그리고서 의장병(儀仗兵)의조총제발(弔銃齊發)이잇고 끄트로 비탈기를 날리엇다 그리고서 내전(內田)위원장 인사가잇슨뒤에 오후두시오십분 쯤에식을마치엇다 (사진은 고별식장)

明年度 警察官增員 飛躍的大擴充

經警整備主體로八百八十六名

조선의경찰력은 시국의제일선에선경방시설의 확충과 경제경찰의 진용정비를 주체로하여명년도에는 비약적으로 확대강화하게되엇는데 경방, 경제경찰의 두진용의강화와함께 이동경찰의 역(驛)신설에 따르는 경찰관의증원등 상당히넓은 범위의확충이 기대되어잇는바명년도에 증원할경찰관의 총계는 경시여섯명 경부열아홉명 경부보사십구명 순사팔백십이명 합계팔백팔십륙명에 달하여 조선의경찰망은 시국과함께 더욱더 그기구를 정비하게되엇다

紳士賭博團

판돈을 천원이나노코 도박을하던 신사세명―부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 일백구십사번지의상십구호 운송업 이남석(李南石)(ㅇ)중림정(中林町)삼백팔십번지의칠호 이상덕(李相德)(ㅇ)아현정삼백칠십번지 철물상 이희창(李熙昌)(ㅇ)등세사람은 삼십일밤여덟시 봉래정삼정목 일백구번지 안ㅇ한방안에서 하루도박을시작하여 처음에는 다섯곳에 이전을걸엇스나 나중에는 액수를 점점높혀 다섯곳에 십원씩을걸고 노름을하다가 서대문서원에게 붙들리엇는데 판돈이 천여원이나잇서 모조리압수되엇다

清津漁港의大火 水産界에大打擊

今日午前까지猛燒中

【咸北支社發特電】 삼십일밤 청진(淸津)어항에서 이러난 대화재의정경은 참으로 참담하기로나 또불이크기로는 근래에드믈게보는 큰불이엇다 밤열시지나서 다소세력이 약해지기는햇스나 삼십일일아침에 이르기까지 아직도 완전히 진화치를 못하고, 오전십시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불길은 맹렬하야 검은연기는 무섭게 하늘을 덥고잇다 타버린 창전(昌井)추전(秋田)정천(井川)의 세곳 수산공장은모다 청진어항에서는일류의「경어란공장으로」 어항으로서의번영이청진의 생명선인만큼 세공장의화재는 청진어장에 영향미치는바크다 불이이러난원인은 삼십일일아침에이르러 장전공장숙직인부자는 방화뎐에서 화간수를잘못하여낫것이라 전하고잇스나아직확실치안타 그리고 손해총액은적어도 유백만원을 너머리라고하는데 함경북도경찰과 청진경찰서등에서아직 상세한 피해상황을 조사하고잇다 시절이물짜가귀한때라 보충까지에는 한든해편도만흔모양이다 세공장의 상황을보면 추전공장이 자본금 백만원 정천공장이 자본금오십만원의 주식회사이고 장전공장이자본금오십만원의 합명회사로어분(魚粉)공장이엿다

南支廣東方面 航空郵便取扱

대북(臺北)과 광동(廣東)사이의 정기항공(매일일왕복)는 이월일일부터 개시되기로되엇는데 이항로개설에따라 조선으로부터 남지방향지로가는 항공우편, 소포도 동시에취급하기로 되엇스므로 그방면으로가는 우편물은 현지에이빨리질터이다

紀元二千六百年 奉贊展覽會開催

總督府主催、來七日부터十日間丁子屋서開催 史蹟、資料展示、歷代聖德仰慕

총독부에서는 기원이천육백년을마지하여 조국(肇國)의 정신을 발양하고자 오는칠일부터십륙일까지 십일동안 부내남대문통 정자옥(丁子屋)백화점에서 기원이천육백년봉찬전람회(紀元二千六百年奉贊展覽會)를 개최하고 천업회홍(天業恢弘)에관한 사적(史蹟)과 자료를 전람하여 멀리 조국창업의 굉원(宏遠)을 추앙하며 역대성덕을 경모하여 반드시에 만국에 비할대업는 우리나라의 국체의 정화를 천양(闡揚)하여써 국민정신을 앙양하기로되엇다 이제 그전람품의 대개를보면 조국창업그림과 역사모형전시(展示)를비롯하여 방공(防共)도표 역대어릉사진 도검(刀劍)등으로써 그상세한것은 다음과갓다

展示品目

一、展覽會趣意 十尺×六尺
二、肇國創業繪卷 壁面六十五尺
三、歷史模型展示
大 一場面 十五尺×四尺
中 六場面 九尺×五尺
小 三十場面 五尺×三尺
四、防共圖表 十二尺×五尺
五、歷代御陵寫眞 壁面二百四十尺
六、紀元二千六百年奉祝會趣意 十尺×六尺
七、紀元二千六百年奉祝記念事業關係
歷史模型展示 三場面 一場面에對하여 十尺×五尺
圖表 一場面 十二尺×六尺
八、朝鮮神宮御寶物 又는寶重品
九、刀劍 約六十振

佛門에僵屍

절깐대문아페서 얼어죽은 사람이잇다― 작삼십일 오후네시반쯤 부내장사정 묘심사(妙心寺)대문아페 사십가량된 여인이 영하십오도를 오르나리는 추위에 얼어죽은것을 종로서원이발견하고 곳 부청으로넘기어 매장케하엿다

男子用國民服四型 陸軍被服協會制定

육군피복창안의 피복협회에서는 각방면권위자들의 협력을어더 최근카라ㅡ、넥타이、와이샤쓰、주기가필요치안흔 국민복을제정하여 지난이십칠일 오후여섯시부터 국민복 제정발표회를열고천물소개와 설명을하엿다 (사진은 국민복의오처고리 일종을부터 사용부지)

핏줄은경긴다!

양아버지한데서친아버지에게로 法廷에親子關係不存在確認訴訟提起

아들업는 친아버지와 친아버지가치 길러낸양아버지 그사이에끼인 아들게이 비저내인소설가튼인정애화가 삼십일일 경성지방법원민사부에 소장으로서 들어낫다 이남강원도철원군동송면오덕리(鐵原郡東松面五德里)구백팔십삼번지 신기률(申基律)(二之)은 횡성군갑천면상동대리(橫城郡甲川面上東大里)일백구십번지 신치성(申致聖)(ㅇ)과 그의처 박씨(朴氏)(ㅇ)를걸어 친자관계불존재확인(親子關係不存在確認)소송을 일으켯는데 그내용을보면 다음파가다―원고는소외 이석란(李錫蘭)(ㅇ)파 당시그의 첩이던 피고박씨와 사이에 명치사십오년 일월구일 태어낫섯는데 그때생활이 곤난하여 박씨는 이석란과 이별하고 원고를 데린채 이월에 피고 신치성파 가치 살게되엇스나 그사이에 아들이업서 쓸쓸하므로 당시 피고와의 두아들이 잇슨 이석란의 서자로 대정이년시월 고사이의 무인을바더 원고를피고에 입적시켜 이래 친아들파가치길러 장가까지 보내어주엇다 그후 대정구년십월 피고사이에는 아들이 생겻슬때에도 아버지로서의 사랑에는 변치안흐나 이석란의 두아들이 불행히 죽어버리자 신치성은 자기아들이아닌 아들은 자기가 독차지하여 이석란으로하여금 쓸쓸한여생을 보내게 하는것이 민망스러워 대정십사년삼월에 드디어 원고를 은밀한 방에불러들여전후사정을 말하며「자식은 자기아버지를위하여 하는법이다 이것이인륜(人倫)이다」라고 타일럿스므로 그후친아버지인 이석란을 차자그집에서지내오며 효도를하든중인데 이석란도여생이만허 원고를하루바삐 자기민적에 너코서파하니 길러준아버지의 민적에서 자기를빼어달라는것이다

日用品饑饉의 最近蘇聯國情

三十年間囹圄生活을述懷하는 林田武雄氏 途中談

이십여년동안 로서아에서 해삼위에서 장사관계의일을 보고잇다가 소화십일년십이월십이일에 외화(外貨)를 교환하엿다는죄명으로 해삼위재판소에서삼년징역의판결을받고 해삼위감옥과 우랄산미테잇는「스벨드럽스크」감옥에서 삼년동안 살고서 작년십이월십이일에만기출옥하엿다는 장기현(長崎縣)사람 임전무웅(林田武雄)씨는 지난이십일 청진에들어서 고향으로 도라가는도중 삼십일밤 경성모처에서 신문기자단과 맛나보고 로서아의 최근사정과 감옥생활의 체험담을 다음과가치 이야기하엿다

요지음 일크츠크에나 해삼위에나 일용필수품이 매우 부족하다 큰배화점에 들어가 보드래도 샤쓰나 손수건이나 기타 일용필수품은 별로업고 질그릇파 버들상자 따위가 노여 잇슬뿐 이다 그래도 민중은 어떠케나가는지 그럭저럭 잘잘고 살아간다 물건이업는탓은아닐터인데 아마 어디만히 싸허두고 잇는때문일듯하다

해삼위에잇는 우리일본사람일곱명은 소화십일년십이월에 외화교환죄명으로도 일심 이심에서 모두삼년징역의 판결을받고 그동안 감옥사리를 하엿는데 처음십오일동안은 노역을하엿스나 그뒤부터는 나올때까지 아무것도하지안코 지냇다 로서아감옥에서는 자기옷을입은 그대로드러노코 하로세끼식 빵파숩을주며 난로를피워서 춥지는안햇다 루블로 한대를바닐는업스나소벨드럽스크감옥으로 올마간뒤에는 일본사람이 늘한명도모르고 지니서는 상고봉사건이 잇슨것도전연몰럿다 요지음 해삼위방면의 신문이나 일반관민들의 일본에대한감정은 그전보다 훨신조흔편이다 일본과의 어업협정도다시체결되고 아르토는 새로사이가소화될것이라고 말하고잇다 (사진은 임전무웅씨)

石油秘密去來

小賣商에게서莫合逆移出한 뿌로커一名檢擧取調

부내본정서에서는 수일전 부내에거주하는석유「뿌로ㅡ커ㅡ」이종수(李鍾秀)와 김중하(金重夏)를 유치하고 그간석유비밀거래 협의로취조를 하는중이다 이상두명을 중심으로 진행중인 석유비밀거래 사건은 조선에서 일즉보지못한 비밀거래(闇取引)의전형적사건으로 이들은 내지에서석유를사러온「뿌로ㅡ커ㅡ」들과 소매상과 부내각석유상으로부터 석유를 사서모은후내지로 이출한것인데 상부가업는것은 물론 그방법은 극히교묘하여 지금 사건의전모가 판명되기까지에는 아직 상당한시일이 걸릴모양이다

木炭에暴利

부내내자정(內資町)이백번지신탄상 염금룡(廉今用)(ㅇ)은작년 십이월하순 양주군 진접면부평리(楊州郡榛接面富坪里)에서 목탄사백일흔네섬을 가저다가이달 이십일까지 일등숫 한섬에 (공정가격 이원십이전) 이원십오전 내지이원사십오전씩밧고 이백일흔섬을 이등숫한섬에 (공정가격 이원일전) 이원이십전 내지 이원삼십오전씩밧고 일흔섬을 삼등숫한섬에 (공정가격 일원구십칠전) 이원십칠전씩밧고 일백네섬을 팔어 팔십일원오십전의부정이득을 먹은것이 종로경찰서 경제계에 적발되어 방금 엄중취조를 밧고잇다

不正木炭商摘發

부내북아현정(北阿峴町)일백구십이번지 이재우(李在雨)(ㅇ)는 숫(木炭)임배설흔여섯섬을 공정가격보다 사십삼전식이나 비싸게 팔다가 삼십일일 서대문서에붓들리어 취조를받고잇다

今夜의라디오

第二放送 ▲午後六時 이달의名作選 ▲六時三〇分 趣味講演 ▲七時三〇分講演 ▲八時(東)… ▲八時三〇分 西道(?)… 代日本讀書 ▲九時(城) 謠曲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解說 ▲六時二五分 (城)講演 ▲七時四〇分 (東) ▲八時(城)朗讀 ▲八時一五分 (東)浪花節 ▲九時(東)小說

餘滴

소위 양반이라고해서 겻를을 여메두고도 떨기만 하다가 얼어죽어야만하는가 ▲이는사람이 가여야할길은 몹이건 불이건 헤아리지말고 가야할것이고 가서안될길은 몹이나 불등뒤에서 내밀어도 가서안될것이다 ▲사내대장부의 기개를 비유해말한것이어니와 ▲치운날에 따뜻한 온돌방에 들어안저잇스나 … 그러타고 거지가모여들면 모여드는대로 방이건 창고이건 그대로 내맥기고 몰을피워수라는것도 아니려니와 몰을 때이것다는 거지라해도 잡간 추이를 면할기회를 엇자는데 몰파햇슬것이다▲그러것을 때리고밟고 차고해서 죽게햇다는것은 … 나물을 에끼다는등의이유로 몰것이니라 인정상 문제라할것이다 사람에게서 가장빗나여야할 인정이이러케 문허질수가잇스랴

體育學確立에 多年間의希望實現

體育學會에서는 體育學科의 … 文理科大學을 … 體育學科를 設置하고저 … 元來 體育에 學問的體系를 確立하고잇는것은 歐米서는 … 日本에잇서서 體育의學問的硏究는 明治三十七年에 高島平三郎氏의「體育原理」와가튼名著도잇스나 … 今日에이르도록 … [illegible]

▲… 1 … 2 … 3 … 4 … 5 … 6 … ▲… 1解剖學 2生理學 3衛生學 4心理學 5敎育學 6倫理學 … [illegible]

그러나 現在中等學校以上大學 … 約五千名 … 約五百名 … 千五百名 … [illegible]

그래서 體育學科의 設置는 … 期待된다。 … 體育學은 일지기師範大學設置의 問題가 當時로부터 關係者間에 … 文部省內에서는 專門學務局와 普通學務局에서 見解의相違로 成果지 … 그의努力에 對하여 期待를마지 하고잇다″

今秋伊太利選手 五名招聘

【…】全日本「아마추어」… 今秋 世界 … 伊太利 「아마추어」… 招聘하여 … [illegible]

平壤西門高女 全朝鮮大會에參戰

【平壤支社電】… 西門高女 … 全朝鮮氷上競技大會에 … ◇光成中學＝午前十一時부터 … ◇西門高女＝午前十一時부터 … 大同江「링크」에서 … [illegible]

朝鮮硏武館 冒寒昇格者發表

朝鮮硏武館에서는 心身鍛鍊을 爲하여 今年度의 冒寒練習을 一月二十二日부터 三十一日까지 每日午前五時부터 開始하여 同六時까지 擧行한바 參加者는 百七十餘名에 達하엿는데 參加者多數로大盛況裡에終了하엿다。三十一日에 冒寒練習을 終了한後 成績審査를 施行한 結果 優秀한 成績으로 昇段進級한者가 六十八名에 達하엿다 그리고 昇段進級者의 氏名은다음과갓다。

▲三段 朴東煥 ▲二段 李鍼 李定杜 ▲初段 金日韶 安秉瑛 朴永弼 申良雨 尹萬水 金俊興 鄭顯璘 ▲初段候補 李益根 崔泰用 黃圭東 丁炳皓 盧炳健 ▲一級甲 裴小金 ▲一級乙 李健鍾 崔昌來 吳泰圭 張炯淳 ▲二級甲 崔鍾炳 李時永 韓東律 文熙烈 ▲二級乙 金東俊 ▲三級甲 徐炳斗 高尚俊 金洛鄕 ▲四級十名 ▲五級十九名 ▲六級三名
(少年部) ▲三級乙 李昌燮(十二歲) ▲四級乙 朴正完(十四歲) ▲五級乙 李運鎬(十四歲) ▲六級甲 崔永秩(十三歲)以上六十八名

朝光 二月號 絶版 定價四拾錢

讀天下愛讀者諸位의熱烈한支援이래 日益發展하는 朝光은 二月號의大增刷部數가 또 絶版되엇슴니다 이는오로지 愛讀者여러분의熱烈한後援의賜物이오니 感謝不已하옵니다。그리하온데絶版되옵기 때문에 購讀의便宜를 圖하여 日까지 誌文이遲延하와眞實로罪悚하오나 이온中不得已二月號는 時日關係로再版키難하와 二月十五日發賣되는三月號로써 代送하겟사오니 惠諒해주옵소서

朝鮮日報出版部 白

京城府太平通一丁目六一 朝鮮日報社出版部發行 振替京城 五八七八番

和 2月1日愛國日休業 來五日은平常과如히營業함니다 和信

特選·實質 防寒雜貨 賣場 三階 紳士用品 婦人小兒用品 豊富具備! 防寒用락타샤쓰 防寒帽子各種 毛마후라ー各種 모쓰ー란·비로ー드·쇼ー르 婦人兒童內衣各種 베비ー用品各種具備

必需百貨 50錢均一雜貨 賣場 地階 어린이에푸론 洋服掛(三個組) 8 其他 襁褓 箱子 串又·한카치 各種

每週의재미거리(金·土·日定期上映) 午前十一時半부터上映 映畫會 時事뉴ー스·文化映畫·漫畫 (入場無料) 六層 호ー르

美味新鮮 和信食料品 北魚 한 쾌…1·20 버섯 十 匁…08—30 실백 一 袋…30부터 유포 十 匁…40 고비 一 玉…10부터 黃花菜 十 匁…09 地階食料品部

會商永吉 색실·문사실·전가방사 편수실·文化ヤン·手藝百般 전재봉사 京城府寬勳町一四一 振替京城二八七一七 電話光(3)三八六六番

洪錫厚診察所內 光學堂眼鏡部 京城鍾路普信閣下 電光二二八

京城商科學校 朝光·女性·少年愛讀! 第一學年約六十名 願書締切二月二十七日 試驗期日 三月二十一日

ラヂオ技師養成 一個年 … 京城府 …

京城女子商業學校 生徒募集 願書接受期限 二月十五日(學則要三錢切手) 試驗日時 二月廿七日—三月二日 出願期日二月二十九日迄 (定員一五〇)

松都中學校生徒募集 第一學年生徒約百五十名 試驗期日 三月六日—九日マデ (京畿道開城府)

認官 京城中等專修學院 第八回生徒募集 ▲本科(各中學校入學準備) ▲專科 京城府黃金町六丁目廿三番地 電話本局五三六〇番

認官 京城高等簿記學院 第五十三回生徒募集 ▲本院(明治四十五年) ▲專科(一個年卒業) 京城府黃金町六丁目廿三番地 電話本局五三六〇番

金泉中學校生徒募集 募集人員 第一學年 約百名 選拔考査 三月十二日부터三月十六日까지 願書提出三月一日까지

梨花高等女學校 出願期限 二月十五日迄 第一學年募集人員 約百名 試驗期日 二月廿七日부터三月二日까지 (京城府貞洞町)

古代詩歌의美

古歌今釋 (二篇)
—麗謠評注의一節— (二)
梁柱東

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ᆫ 선ᄒᆞ면 아니 올셰라

은 第三聯의 一轉을 보다! 어너케、爽快한 轉換이며 얼마나 飄逸的인 抒情이가。行文이 淋漓하여 거의 山窮코 水盡한 境界에 臨하엿더니

(着想) 가 一轉하매 진작 柳暗코 花明한 又一村을 展開되지안는가。「그리도 孤俉스리 작구만 떨치고 가려는 님을 내둘 억지로라도 붓잡아둘 생각이야 어이업스리오마는 서섣하게 생각하시와 다시는 오지를 안흘세랑」『妙處』는 全혀「선하면」三字의 突兀한 姿勢에잇다。이를 일러 天來의 奇語라 할까 意表의 構想이라할까 이三字一 寸鐵殺人의 慨가 잇서 酒脂를 賦活케하며 全聯을 躍動케하여 銳利한 閃光이 紙背를 徹하려한다。大盡 大佛의 開眼이 바로 이三字요 僧繇의 點睛이 정작이一語이다。本聯은 二句의 辭意가 스스로 連結되면서 各句는 다시各句대로 獨立的으로 돌 가젓다「억

(妙味) 지로 붓들기만 하면 제아무리 거세인 님이라도 뿌리치고 가든 못하렷만」대개 이前句의 뜻은 님파 나를 아울러 미듬이니 이것이 或 至極한 사랑의 가엽슨 自信일지요、또 或은 어리석을손 사랑하는이의하욤업는 생각 이리랑「그러컨마는 억지로 그랫다가는 혹시님이 섣하게생각에 다시 아니올세라」後句는 또얼마나 혼자의안탑가운 사정이며、은근한 걱정이며、남모를 가엽슨 델리카씨이뇨。

그러나 다시 이前後句의 辭質法을 注意하여 볼것이다。前句는 信하듯 虞하고 虞하듯 信하니 大抵前句의「잡ᄉᆞ와 두어리마ᄂᆞᆫ」은 한번접짓 自信을 잡하는양、제법가는님을 못가게 할수도 잇는양、흘내여 볼이로되 속살은 벌서 떼어난 離愁를 告白한것이니 다만 虛勢의 幾許加이오、後句「선ᄒᆞ면아니올세라」는 거트로 怯喜殺하는듯 嚇言을 吐하는듯 하면서도 其實은 어느듯 下文에 後約의 빌미를 만들고저 함이니、한마듸로말하면 前句는 擒而縱이오、後句는 縱而擒이다。擒縱의

(虛實) 이交叉되는中에 어느듯 次聯에 서後約을 머므르고 잇다。本聯은 이미完成되엇다。이것이 이른바 거트론 棧道를 닥는체하고 속살론 陳倉을 건너는 虛實의 用兵法이다。

설온님 보내옵노니 가시ᄂᆞᆫᄃᆞᆺ 도셔오쇼셔

末聯은 … 照한을 무엇하며 訴할 … 하며 짐짓 反覆하고 다시 놓치블을 도한무엇하랴。初聯으로부터 二三聯을 지나온 悲哀의 折과 迂回는 모다 이結語를 爲함이엿다。「이도저도 못하여 설으온 그님을 이제는 허는수엄시 보내압노니 가기는 가서도 지금 가실때 그러케 忽忽히 가시ᄂᆞᆫᄃᆞᆺ 금 그悲訴임을잇고 아속 別離一시生起엿다는 意味가 아니고 이 제발 忽忽히 고대 다시도라서 오소서。」結句의 妙는언제나 無限한 餘韻 이른바 辭盡意不盡의 境地에잇다。하물며 離別이랴。後約이랴。期約부터 못는것은 古今別離의 通有의 情임에랴。

우리는 이며行을 읽어온 끄테 結句의 殷勤한 情緖에 끌려 저 首句의、怨詞이엇슴과 二聯의 斷腸的敍述、三聯의擒縱、虛實等 許多의

(層折) 을 지나온것을 거의 忘却할뻔 하엿다。그러나 作者는 오히려 이를 먼저 念頭하엿지 이 結句中에「가시ᄂᆞᆫ둣」四字를 잇지 안헛스니 대개「가시ᄂᆞᆫ듯 도라서오쇼서」는 얼는 보면 純然한 付託의 辭이언만 實은 가는 거름의 너무나 忽忽함을 원망하는 辭意가 隱然中 이에 包含되어잇스니 이것이 또한 一字兩義의妙諦요 虛實相照의 秘法인 同時에 怨詞는 怨詞로써 맛치는 首尾雙關의 章法이다 그리하여全篇의 辭意는 스스로 環狀을이루어 無限의 酒趣를 寓하나、結語는 結語대로「도라오쇼셔」一語에 結晶되여 읽는이로하여

의 價値가 … 를 깨닷게할 뿐이니 本歌의 作者야말로 저 如來의 說法을 끄트로 無 … 新羅 … 이다。

(大乘) … 佛法의 … 를 … 하엿다 이 … 이다。

西京別曲

西京이 서울히마르는 닷곤되 쇼셩경 고의마르는 여히므론 질삼뵈 ᄇᆞ리시고 괴시란ᄃᆡ 우러곰 좃니노이다

… 수스리 바회예 디신ᄃᆞᆯ 긴히ᄯᆞᆫ 그츠리잇가 … 大同江 너븐디 몰라서 ᄇᆡ내여 노ᄒᆞᆫ다 샤공아 네가시 럼난디 몰라서 녈ᄇᆡ예 연즌다 샤공아 大同江 건너편 고즐여 ᄇᆡ타들면 것고리이다 … 聯은

(敍事) 와 … 이 … 대、본작이 … 는 … 이 고 … 을 … 하고 … 로 … 의 사람의 … 이 아니오 또 … 이 … 은 … 이니 … 西京의 別曲을 … 이 … 이 … 우리라。『西京이 본래 서울이어만 새로도 …

(詞意) … 가 … 이 … 다 …

入學案內

學校名	入學人員	願書受付	試驗期日
京城商業	第一本科 一五〇 第二本科 一五〇	三月十日까지	自三月十四日부터
仁川商業	一五〇	三月五日까지	自三月十一日 至十二日
好壽高女	一〇〇	二月二十日까지	自三月一日 至二日
開城商業	一〇〇	二月二十九日까지	自三月十一日 至十三日
平壤西門公立高女	一〇〇	二月十五日까지	自三月一日 至二日
平壤公立商業	一五〇	二月二十日까지	自三月十一日 至十三日
晉州公立商業	一四〇	二月末日까지	自三月十一日 至十二日
公州公立商業	一五〇	三月五日까지	自三月十一日 至十二日
忠州公立商業	一五〇	三月五日까지	自三月十一日 至十三日
淸州公立商業	一〇〇	自二月二十一日 至二十九日	自三月十一日 至十四日
井邑公立農業	一五〇	三月二十日까지	自三月二十一日 至二十二日
慶興農蠶學校	(男)一五〇 (女)五〇	三月二十日까지	自三月二十二日 至二十四日
新義州南公立高等女	一五〇	二月十五日까지	自三月一日 至二日
永生中學	一〇〇	自二月二十一日 至二十九日	自三月十一日 至十三日
東萊公立高女	一五〇	二月二十五日까지	自三月十一日 至十八日

書家의彫刻 …⑪…

「폴·고—갱」은 이른바西洋파 또文明에 아주疲勞해버린끄레野蠻에아주憧憬해서「타이티」섬의土人속에 永遠히 드러가 畵家이엿다。이彫刻은「두타이티女子」라는 活彫로되그의木彫로서 그가彫刻에잇서서도 一家를이룬것을보인것이다

書齋餘聞
俗談 (中)
金思燁

道德的遺產

大體俗諺은 우리말로 俚諺이라고 하는外에 俚言、俚語、俗語、俗言、俗談、鄙語、野語、野諺、상말、젓말等 多種의 呼稱이잇스나 그中에 古來로上下各層을 통하여 普通的으로 使用되는 名稱은 俗談파「상말」의 두가지다。

俗談은 그發生經路、發達過程이 民謠와다름이 업다。古代의修辭家들이『諸作者가업는格言』이라고 俚諺을두고말한것은 처음부터 作者가 全然업시生起엿다는 意味가 아니고 最初에는勿論이를 唱導한사람이 잇섯기는하엿스나、그러나그것이 그唱導者一個人의主觀偏見에서우러나온것이 아니고 그世代自己周圍에 瀰漫浮遊하는 思想感情을 巧妙히捕捉하고 凝結하여서 發表함에 그周圍의 多衆은 비로소 이에加應하여 그들가운데로 몰아가버린다。公衆은 다시 自己들에게옮마 오며俚諺에다가 適當하고 簡潔한口調도 옷을입피고 修飾의 彫刻을하여 自己들 共同所有物로 改作하여버리는것이다 於是乎 最初一個人의것이 서 그個人파는 아모關係가 업는것이되고 말고 多衆이이 諺이 威望을갓초케하여 制作에參與한 權利를가지게 되는것이다。아메말한『諸作者가업는格言』이란말도 이런意味下에 特殊한作者가 업다는말이다 이가치 天然人物에 遭遇하고 事物에接觸하여 이에 感激하고 思感하며 喜怒哀樂等의雜多의感情을 經驗하는 가운데 이것은 한知識이 되어지고 俚諺이되어 그것은 다시子子孫孫까지 傳해나려 가는것이다。우리가 使用하고잇는 諺中에는 그由來가 이 까마특한 古代에 關한것도 만히잇슴을 發見한다。同時에 우리는 그것이 여러가지로 訛傳歪曲된것이 許多함을알수가잇다。古代의 記錄이 比較的 冷冊한 朝鮮에잇서서는 이를例證할 文獻을求하기가 不可能하나、外國의 俚諺史에 미루어본다면 반드시만흠을推測된다。 그러나 俚諺中에서도 그時代

世界의귀

人間機械의求職廣告

【倫敦發同盟郵信】 最近「미돈、타임스」紙에 珍奇하고도 의살마즌 求職廣告가나서 倫敦市民을 놀래게하고잇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가장 能率的으로 일을하고 그러면서効果的으로「에네르기—」를 提供하는 人間機械를 雇傭하고 십다는것이데 그廣告文은 다음과갓다

現代知性의「에네르기—」를 提供하는 人間機械

이機械는 무엇이든지 할수잇다 年齡은 卅六歲、이미 學位는 열以上 가지고잇고 著書二冊、「팜프레트」二十冊、雜誌二部를 刊行하엿다 希望所得年五二○磅。國外勤務에 最適。但戰爭勤務는 이機械가 不適하므로 이것만은 希望지 안는다。

戰時型發明

【倫敦發同盟郵信】 戰爭은發明의어머니라고하지만 戰爭開始以來 倫敦의發明協會에서接受한 新案品에는 珍發明이多數하데 그中 二、三의例를 들면 다음과갓다

一、睡眠防止器

一、三重「파라슈—트」

「파라슈—트」 하나로서는 아모래도 危險하니까 이危險을 防止하는데는 그우에 어미「파라슈—드」를단다는것인데 아주安全합니다

其他沿岸에도 볼수잇는 빗나는 地圖및나는「노—트·북」等이라고한다

歐米各國의勳章

▼—佛蘭西 … 佛蘭西共和國 一八〇二年「레지옹·도뇌르」라는 勳章을 制定하엿다。官報에는 이 勳章을 새로 에開戰後 새勳章을 制定한다고한다。(…)

▼—數百年을나려오는 나라에서는 그들의 勳章을수어와드 報에 새勳章이 이 收하엿다。佛蘭西가 그軍人에게주는 最高의名譽는 「메다이유·밀리테—르」로서 이것은 한사람에게 두 번주는일이업다。그이二年에 制定한 功勳章이잇서 來勳章의中樞다。가米國勳章의中樞다。

그보다도 먼저 一八六二年에 制定한 功勳이 이두가지 勳章이잇서 日本勳章의中樞다。

▼—美國에서도 一九一八年에 佛蘭西의 勳章을 따라 有功十字勳章을 맨드럿다。그나라에는 … 것은 한사람에게 … 다。그것은 勿論「메라이유·밀리테—르」보다 功勞보다 … 라는 … 勳章에 대해서는 現在까지도 씨이다。

▼—現在까지도 씨이는 世界大戰의 鐵十字勳章이다。이것은 一九一三年에 制定된것이다。

山居閑題 ②
…續·宮村記…
李無影

朝鮮옷과友情

이런 小題目을 부처본다。 면번을 읽어보아도 調整로러 가 동이 뜬다。朝鮮옷파 友情에 무슨 關聯이잇스랴 그러나 이러케 山間에 들어 박키어 比較的 閑暇한生活을 하게 된後로부터 異상할만큼 이 두 觀念에서 그 어떤 共通된 情緖를 느낀다 朝鮮옷에서 새맛 — 새로운美를 느낀다

내가 철이나서도 朝鮮옷을 입은것이라고 볼수는 말을 만히 들엇다 그러나 洋服을하면 어쩐지 洋服을 贊想케된다。洋服보다는 朝鮮옷이란 말이 낫장 보다 안흐가 그런 생각도해 山間에 生活케되고보니 自然

洋服이 必要치안치 된까닭도잇지마는 亦是 朝鮮사람에게는 朝鮮옷이 맛는다 반드시 책상다리를 하고 버선바닥을 무질을 必要가잇서서가 아니다。우리에게는 生活形式으로나 生活感情으로나 亦是朝鮮服이 어울린다 이것은 그무슨 美學上으로도 보든가 經濟的으로도 본다든가 그런 째까다로운意味에서가 아니라 그저 조하보인다

日前 서울갓다가 偶然히거리에서 R兄을맛낫다 R兄은 어떤 편이면 端正한 사람이다 살이 부치못한 탓도 잇 것지마는 맵서운 큰 눈이라 든가 세찬코스나뢰한든가 유달리 큰귀 이런 얼굴全體에 어 … 는 두루마기를 엇고 自 … 하게 보이는 그 亦是 … 한 … 다 …

서 一種의 야바한 印象을 받는다 거기에다가 몸에 짝붓는 洋服을 입엇다。그의 강직한 性格이라든가 才質을 의심할 까닭도 업다 … 하면서도 어떤까닭인지 接近하기어려운 사람처럼 느껴오던 그가 그날만 은 유달리 餘裕가 잇서보이 고 雅趣가 잇서보인다。그래 서 前에 하던 不分으로 茶를 나누고 헤어졋지마는 요새가 마니생각해볼때 그것이 亦是朝鮮옷에서 오는 餘裕엿고 雅趣가 아니엇든가 십다。洋服은 이다 … 은 R兄이 그날은 쇠 … 얼인지 검은 毛織 주루마기를 입엇섯다。

넓죽한 두루막수매속에는 二十餘年 손을 잡하며 차고 검은털 다음의것이 엇 고 소담스러운 다른조이 엇 마는지 드러잇슴즉한가치 느 끼어진다 바짝조려맨 洋服깃 보다 푸근한 압자락이며 넓 직한고름을 느슨하게 맨매듭 이며 는질는질하게 너슬거리 는 두루마자락이며가 歡心이 고는 엄하지도 업는사람을 맛 나게 노흐니 그 얼마나

갑고 대동처럼 흰옷만 하던 다리대신에 푸근한 바지가랑 이―亦是 조선사람은 조선옷 이―맛는다는 생각이 切實한 度로 느껴진다。

벌써 七、八年前이지만 李 箕永氏가 開闢社에잇슬때 나의 印象記를 쓰면서 『나무장사』 엿는가『숫장사』갓다고 한 이잇다 내얼굴이 나무바리장 사나 숫장사가치 못생기고도 잇겟지마는 李氏도 亦是 그 때 나의 쾨쾨죄한 두루막이 에서 그런印象을 바든것이 아 니엇을까 이러케 自慰도 해 본다

어쨋던 朝鮮옷은 餘裕가잇 다 洋服엔은 사람을 꽝지빠 진 세련다면 朝鮮옷을 입은 사람은 꽝지가 푸군한새다。

이런것이 動機가 되엇는지 는 모르나 수年에 처음 마 니여지지만 수年에 처음 마 고자도 하나 해입엇다 人造

말도 잇서지만 그러드시빨 끝하던 性質도 朝鮮옷을 입 으면서부터 얼마큼 눅신것가 튼 感도 잇다 처음 시골와 서 며칠 안되엇을때 람프에 불이 잘붙지 안허서 등 피를 내가 메어처서 깨바순 일이 잇다 그런것이 지금 은 몃번이고 다시 성양을그 어대다 이것은 반드시 람프 켜기에 熟練한 탓단도 아닐 것이다

시골와서 몃달 되지는 안 흐나마 아무개는 어떤사람이 고 누구는 어떠코 대강 집 작만은 하게되어 그中 가장 許可 조치 못한 사람을 日前 目前에 노코 仔細이 뜨더본 일이잇다 第一 그런사람들이 洋服을 쓰빼지게 입고 나간 다면 그야말로 近처에도 가 기실만큼 갑자는 人物이나 亦是 아무러케나 맨옷고름이 며 풍덩한 바지가 주는 印 象에는 餘裕가 잇고 雅趣이 잇서 보인다 外國人들이 朝 鮮사람을 퇴폐하고 無氣力하다 고 하는것도 이때문일까。

庚辰史話

三大罪人의亡命 (三)
黃義敦

다우연 朝鮮唯一의 仙教的寺院인 昭格署의 廢止運動이 일어나 丙子十二月에 蔚山郡守 張世昌을 …하자 …이 … 大月에 金安老 … 等의 … 들으러하는데 … 를 … 이 … 年 … 朝鮮을 …

… 弘文館 大司諫 … 이 … 하여 … 月間에 … 라가 八月二十二日에 마치내 … 하엿고 九月一日엔 新任 … 하여 論爭 하엿스며 同月二日엔 新任 … 이 도 … 하자 … 弘文館 … 漢城府 … 六曹 … 等 … 이 … 하여 … 門外에서 … 가 … 日力爭하엿고 日暮後에도 … 하여 … 을 … 하엿다。 … 은 退去치안코 … 에는 三三五五 … 치 深夜 … 하더니 … 中宗께서도 不平한 … 못하야 … 昭格署 革罷키를 允許하사 翌日에 그 … 하엿다。

昭格署는 國家와 王室을 代表하여 靈驗을 祈禱하는 仙教의 寺院으로서 오래동안 君臣上下 男女老少가 다 崇信하던 神祠이다 中宗이 四面楚歌中에서 三個月의 긴 時日동안 持久戰을하면서도 容易히 允許치 안허섯슴을 보면 宗教的 信仰力이 얼마나 偉大한

가를 추측할수잇다 이러한 寺의 撤廢는 同時에 儒學의 勢力이 넘어나 壓倒하고 朝의 權力을 뒤흔들 … 하야 … 이 …

… 等 …

詩壇金屑
佔畢齋의華編下
滄東散人

佔畢齋 … 이 … 의 … 을 … 하엿다 …

新刊紹介

▲朝鮮工業時報 一月號 發行所 京城府大門通 四丁目 朝鮮商工研究會 定價十錢

▲十字架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 三阪通 七의一八四 十字架社 振替京城 一七五〇九番 定價十錢

▲東洋朝鮮 二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 二丁目 大同出版社 振替京城 一〇二一九番 定價二十錢 送料一錢

▲朝鮮工業協會會報 十二月分 發行所 京城府長谷川町 京城商工會議所內 朝鮮工業協會 振替京城 一六九五四番 定價二十錢

▲朝鮮新報 一月二十八日號 發行所 京城府太平通一丁目 每日新報社 定價十五錢

一等當選戲曲
海燕 (全一幕) (3)
咸世德 作
揷畵 鄭玄雄
스틸…劇團高協

006400

安醫師 스무장이 넘는 그림마다 장장이 떠남이 덤마에 걸터안질기도 했고 듀대아페기 대섯기도 햇스니 한두번 만난것두 아니겟지요? 더구나 이섬엔 치부책돈채 연자기가 출구잇는 연자깐두 업구 번드나무가 쭉늘어선 동구바신작노두 업는걸 보면 이섬에서만 논것두 아닙니다。

燈臺지기 (어찌할바를 몰으고) 이、어찌된 영문인지 도무지 알수가업습니다。난 전연 이런줄을 몰랏는데 그년이 어느 틈에…

安醫師 (말을 가로 막으며)사람이 삼사십하만 산대두 모를까、여긴 영감님파 일꾼밧게 살질 안는다는데 여기서 그걸 몰르셧다면 그말씀을두 기고지 듯겟습니까?

燈臺지기 (自尊心을 損傷 당하어) 그럼 제가거짓두 몰랏다구 한다는 말씀입니까?

安醫師 그러케 생각할수 박게 업지안허요?

燈臺지기 (나죽이)그러시겟죠。이게 모두사실이라면 제가큰 실책이엇습니다。

安醫師 난 뭐 영감님파 따님을책하려온건 아닙니다。첫째 과실은 그녀석한데 잇스니까요、그러나 아직 나이가 어리뿐 아니라、제어미가 참 금이야 옥이야 무뤄메서 기른 자식이라 중학교를 삼년째대 기지만 도무지 천등벌거숭입니다。

燈臺지기 학생이야 무슨 잘못이 잇겟습니까? 모두가 내 딸하구 고용을 잘못시킨 내가 잘못이지요。

安醫師 요샌 보도연맹이란 기관이 생겨서 학생들은 구경두못가게 하는데 만일 이소문이 연맹이나 선생귀에 들어가보십쇼。당자에 퇴학처분당하게 될겝니다。

燈臺지기 그러니 어떠케 햇스면 조켓습니까?

安醫師 (입가에 冷笑를 띠우고) 돌으니 영감께서 예전에 자제를 교육에 헌신하셧다 하니까 아고루 어떠케 해야할꺼라는건 나보다 더 잘 아실줄압니다。

燈臺지기 (잘린듯시)네—!

安醫師 (나두 人비를 알아냇지)네

온다。

尹食知 선생님! 잠간만 배올때까지 기울드시는동안、우리마누라 배쏠 봐주실수 업슬가요?

安醫師 (職業意識에 돌아가면) 무슨 병인데요?

尹食知 병치군 망한놈의 병이에요。집안이 망할라면 에펜네 런수가리에 시업이 난다드니만、이건 한술 더떠서오즘동이 뭐가지구 남을 못살게굽니다그려

安醫師 신장염인게군요。

尹食知 배때지가 개구리 삼킨 뱀작아지가치 시퍼러케 붓툴러가지구 오줌만누게 해달라구 엘벙을 핍니다 글세

安醫師 웨 진작 의사를 뵈지 안구 인제 그래두 첫서요。

尹食知 이섬구석엔 누가 와순 라니까?

安醫師 (時計를보면)어듸가봅시다。

燈臺지기 대가리 커—단 기집애가 부끄럼업시 그게 무슨 꼴이냐?

珍淑 자꾸 실타구 햇지만… 거노코、그리든?

燈臺지기 실라는데 강제두 목

珍淑 (無言)

燈臺지기 실은걸 어째서 그 림을 다그리두룩 낙지집는사 눔을 하고잇섯냐?…말을해…

珍淑 이런 풍경은 도회지에선 암만차저두 구할수 업는것이 란、자꾸만 졸라요。

燈臺지기 이게 한국장이야말이징 그건 그렇거니와 이넘어 수무장이넘는그림을 뭐때문에 시칠애구 그리게 햇섯냐말이야?

珍淑 여름방학에 도회숙제가수무장이 나와예요 경치만 그리면 심심하다、또 도회선생이、필수잇는데루 조흔경치속

로 찍어서 항구 사정을 진렬장에 내놧다구 해봐라、누구든지 기생년이나 갈보두 알지、책개라두님은 기집애루 보겟냐? 뭐 보구 그러는지、그래두 널 양전다구 사방에서 혼인이자구를 그러든데、네가 이런짓을 하구 댄것단소문이 들어봐라、고길 회회 둘러두 누쌀를 찌푸릴 테냐。

燈臺지기 뭐라구?

珍淑 (炊然이 소매를 노며)그 학생은 가튼 남자란두 날 그러케 대하는게 아니여요。

燈臺지기 누나?

珍淑 나를 친누나처럼 생각해요 나이두、나보다 두살이나 아래구요

燈臺지기 네! 자기집을 주수롭이 살천이나 하지만、그게 저한텐 다 귀찬녀-옥 그대신서

珍淑 조기사리 나가구 아무두 업서서요 안악네들은 후리그물(地引網)끌러 갯벌에들 나갓구요。

燈臺지기 암전한 강아지 냄비전에 올른다든가。이게 그림이 니까 그래두 낫지、사진으

珍淑 네! 낙지를 잡다가 도라서 보니까、그학생이 나를 그리구 잇섯서요。

나올라구 하는데、다됏스니 잠간만 움지기지 말어 달라구 하기에……

燈臺지기 (그림 첫장을 내밀면) 이게 정말 너냐?

珍淑 뒤에서 다 들엇서요。

燈臺지기 지금 왼는이가 누군질 알것냐?

珍淑 (悄然이 내려오면) 네 진숙아! 진숙아!

燈臺지기 (다시 繼帖을 한장한장 넘기다 漸漸 소상오르는 激怒를 抑制하며 燈臺에 向하여) 진숙아!

尹食知와 安醫師 축대를 오 라 서難아즘 폭아 집쪽으로 내려간다。

(珍淑 배에서 이렇서면(아직 멀 엇서요。지금 타구 오섯든 배가 덕적도(德積島)까지 내려갓다 다시 올라와야 할테니까、한 반시간은 더 기둘르서야하실껄요。

石晤아메서 珍淑은 아버지와 安醫師의 對話가 바뀌는동안 몸단해진 얼굴로 떨고서잇다

尹食知 둘축대를 急히 내려

珍淑 (금지안쿠하는 세상이야。이속에서 한두번 밋두 꾸두 업시 맛낫는남녀가 어떠케형제가 되는답이야?

珍淑 웨 아버진 세상을 밤낫 더런다구만 하세요? (다시 哀訴하는듯이) 아버지 난 그학생을 대할쩌마다 가슴이부풀려오는것갓구、세상이 여간아름답게 뵈지안어요。어떠케깨끗하게 쉬영둥생 삼을수 업슬가요?

燈臺지기 넌 그러케 생각하지만 세상사람이란 다 이상하게 안볼수업서。

珍淑 그인 우리남날 보통사람들 연애하는것처럼 오해하구잇서요。

燈臺지기 남녀는 결국 부싯돌이야 부디치면 기어코 불이 나구야마는 법이거든。

珍淑 (反抗하며)아버지두 우리들사이를 그리케 불순하게 보서요?

燈臺지기 (남카롭게)네가 그회생을 정말친동생가치 사랑햇다면、어째서 그걸 입때 나헌테 속여왓냐?

珍淑 역쓸라구 햇지만… 말안햇서요?웅?나한테 숨겨올 땐、떠떠지 못한대가 그래두 잇길래 그랫지?

珍淑 (잘린드시 말이 곡 마친 다。)

燈臺지기 형제의 우애란 어떤 땐 부부나모녀사이보다 순수하구 고결한거야 구래여 남의눈을 꾀해가면서까지 사랑할 필요가뭐야?

珍淑 조용이 운다 섬에서 蒸汽船이 疾走해오는 소리 尹食知와 安醫師 축대를 내려온다

스틸…劇團高協의 燈臺지기와尹食知의그림

珍淑 에 사람이 울지기구 잇든데 그러하면다구 자꾸졸라기에 … 에서 사나? 아니 던 날 위 해서 「줄기에」「줄기에」… 그래… 이 좋아다구 갈비며두 해줌 허나?

燈臺지기 그러치만……

燈臺지기 칠 잘베다구 그러치만이야?(다시 허장을 넘기며)이건 죽맥도(竹林島)지 섬에 … 네 연자깐이지?

燈臺지기 거긴 칠 차저여오며 갓드랫냐?

珍淑 (無言)

燈臺지기 배타구 갓드랫냐?

珍淑 네!

燈臺지기 노는 누가 저우?

珍淑 (無言)

燈臺지기 누가 저서?

珍淑 (無言)

燈臺지기 냉큼 말하지 못해?

珍淑 윤첨지가 저서요?

燈臺지기 윤첨지가 저서?

珍淑 (無言)

燈臺지기 기집애가 사내하구 단섬엘 갓섯스니 동네사람들이 오죽 숭을 봤습가?

燈臺지기 다 뭐 … 여 … 허니 … 네나 또 … 이、… 장가를 갈나이에 동생 누나가 뭐야?

燈臺지기 (기가 막혀서) 시집 갈나이에 동생 누나 가 뭐야?

珍淑 그러치만 그학생은 날볼때마다「누나、누나」해서요 그리구 선생에나 동포입니 구 하게다구 했구요

燈臺지기 흥깨끼리 흑 의쩍게 에것만 소리 들어지만 나이 는 남녀가 남매맺는단 소린 고금에 듯든용 처이다。

珍淑 (新手하게) 남들이 날 이구 우리 우리지요

燈臺지기 네가、언제가 구약에가 한허이잇서지? 카인이란자기 지동생 아벨을 죽여다구

珍淑 그건 동생을 시기햇지만 나 그학생으로귀여워하지 안 어요?

燈臺지기 세상이 네가 보는것처럼 그러케 깨끗한줄아냐? 에편네가 남편파 괴명이자식을 헌신짝갓치 내버리구 떠 나갈 어더가기가 일수구、자식이 애비를 걸어 재판을서

災害對策과農業企業化

機械化의前提로서 「科學化」의過程

(1) 鄭和濬

以上의모든事實들은 朝鮮의 農業이 아즉도 一方農業生産의 近代化過程은 꾸준히進行되고 잇다.

農業에必要한 各種農器具는勿論 農具, 肥料까지라도 即農業生産手段의全部가 工業生産物이 되고잇다. 다시말하면 農業에잇서서의 技術的進步는 工業의進步에 依存치안흘수업게되어잇다. 그러므로 農業은 恒常 工業보다는後進性을 內包하고잇다. 그리고 諸生産部門의資本主義化에는 分業이 絶對的必須條件인바 今까지의 朝鮮農業에는 內部의分業이 進行되지못하엿스며 따라서分業化와 專門化가업는곳에 技術的으로 企業的經營이 잇슬리가 업다. 이分業化가 發展되지못한 根本的原因으로는 우에서도말한 剩餘勞働部分이 少許도農業經營者의手中에 들어오지못한것을들수가잇고 그結果로서 朝鮮農業의企業化는더욱遲延된것이다.

農業은大體로보아 勞働의季節的變化에 豫期한것이나 作物農業에잇서서는 더욱이 甚하다 作業을 主로하는 「게」

[illegible]

綿布類新規格品의 公定價格發表陳情

늦어도一週日以內決定方針

飢饉狀態는從此緩和될形勢

總督府에서는 區區한綿布類의種類와 規格을統一하고 잇스나 아직新規格品의 公定價格이 發表되지안허 各紡績工場은 얼마에팔어야조흘지몰라 工場에 쌔허노흔채 販賣치안코잇서 市中은綿布飢饉狀態에 빠저잇스므로 朝鮮綿布商同盟會에서는 이事情을具陳하고 速히 新規格의公定價格을 決定發表해주기를 總督府에 陳情한바잇섯는데 總督府에서도될수잇는대로 速히公定價格을決定코자 努力中으로 늦어도一週間以內에 發表되리라한다

砂金懇談會

殖産局의主催에依한 砂金懇談會는 三十日午後一時부터 總督府第三會議室에서 開催되어 穗積殖産局長 木野産金課長外 關係官及 民間에서 砂金業者等約三十名이 出席하고 穗積殖産局長의挨拶後 木野産金課長의 統裁下에 左의事項에對해서 懇談을하엿다

一、旱魃及 結氷期에잇서서對策에對한 當業者의經驗及 이에對한 出席會員의 質問應答

二、技術者의問題

드렛자ー를 新規建造하는者는 技術者를 旣設備會社에 委託養成하거나 又는總督府의連絡을取하여 採用하고 業者相互間의爭奪는 嚴重戒愼할것

三、고무長靴, 鋼材等의資材配給의圓滑을期할것

그리고 當日은 자못眞摯한懇談及質疑應答이잇서 頗히有意義한會合이엿는데 今後도 機會잇는때마다 會合을開催하기로되어 業者의團體創設問題等을 主張하게되엇다

釜山海産物 輸出組合創總

貿易協會가中心이되어 設立計劃中인 釜山海産物輸出組合은 三十日午後釜山商議에서 創立總會를開催하고 定款, 役員을決定한바 同組合은 輸出海産物의出荷價格의 統制를目的으로하는것이다

食糧配給機構

廿五日現在農林局米穀課調査

農林局米穀課調査＝一月二十五日現在의 朝鮮內食糧配給調整에關한 各道의 配給機構別現況은 如左하다

一、各道의 配給組織系統

(가) 一般民에게 對한食糧의配給道를 區域으로하는 道食糧配給組合及府郡島를 區域으로하는 府郡島配給組合을 經由하여 配給함

(나) 旱害民에게 對한 食糧의配給米穀은 前項의配給組合에서 離穀은 다음의機關으로 하여금 配給케함

(1) 要救助農家에게 對하여서는 朝鮮輸移入雜穀中央配給組合으로부터 道配給組合을經由하여 邑面에서 配給함

(2) 要救助農家가아닌 者에게對하여서는 前號의 道及府郡島配給組合에서配給함 金組及

產組는 中央配給組合으로부터 金組聯道支部를經하여 各其組合員에게對하여 配給함

二、配給組合의 組織과 事業의槪要

(一) 道配給組合

(가) 組合員은 道內主要米穀業者中에서 道知事가 指定함

(나) 組合의事業

(1) 米穀及雜穀類의賣買加工貯藏及配給

(2) 組合이必要라고認한 食糧의配給

(3) 組合의資金調達斡旋保證及貯藏倉庫指定

(4) 其他食糧配給을必要로하는事項

(다) 組合資金, 組組資金은組員의出資에依하여 不足額은借入金에依함

(라) 府郡島配給組合

(1) 組合員府郡島內의穀物業者로함

(2) 組合事業資金은 前項道組合과갓다

三、配給方法

(一) 米穀

(1) 過剩道에잇서서는 總督府의配定에基하여 道食糧配給組合으로하여금 朝鮮內需給調節에必要한 米穀을正租로買上하고 七分搗로한後 不足道의

産金課豫算膨脹

旣定 一千八百萬圓

新規 三千九百萬圓

產金國策의 强化에伴하여 總督府產金課의 十五年度豫算은 至前의膨脹을 示하여 旣定經費一千八百萬圓 新規三千九百萬圓 合計 五千七百萬圓에 達하고잇는데 그內譯은 如左하다

◆旣定經費(單位萬圓)

送電線一、二○○ 產金道路一五○ 探鑛獎勵金一○○ 選鑛補助一 其他一

補助金七六 選鑛補助六一 其他二二三 小計一、八○○

◆新規經費

送電線一、六九二 道路二○○ 探鑛獎勵四八○ 製錬獎勵一三○ 選鑛獎勵一、二○○ 其他二○八 小計三、九○○ 合計五、七○○萬圓

古手帖에서 찾은 朝鮮秘話

(8)

朝鮮最初의會社

廣木은언제들어왓나

世上은바뀌어 布木商의 事業以後 綿織業은 廣木을 求하기보다 힘들게되엿다 木商에 新이나마 廣木은 仙樂을求하기 언제朝鮮에 들어왓나 따저보면 日淸戰爭以後 明治三十年頃이라한다 三井物產이 東洋紡과特約하고 朝鮮에 一手販賣權을가지고 仁川과京城에 日本人十名으로 組合을만들어 이들에게 三A(三井을)을내주면 이들이 布木商에게 내주엇다 布木商들은 미리 돈을갓다맛기고 어음을 드리고 配給은 十分一이 못되엇다

三井과對抗販賣

이에 불만을품고 朝鮮의 布木商들이 이들三井에대한對抗策으로 明治四十年(隆熙元年)八月一日에 共益社를 創立하엿다 共益社는 東洋紡과特約하고 九龍을 直輸入해 하는것과 가치手形去來도하여주엇다 뒤에 朝鮮人여商業으로 對抗케된것은 意義가 크다

[illegible]

硫安供給은넉넉

決코不足치안흐니安心하라

尾崎農林局技師言明

朝鮮農會第十三回通常會席上에서 各道議員으로부터 肥料不足이 念慮된다는 質問에對하여 總督府農林局尾崎技師는如左히言明하엿다

肥料政策은 公公然하게 數字를들어서 說明할수는업스나 今年은 周知하는바와가치 內地에잇서서의 電力不足으로 因하여 硫安生産減과 濕化의石炭飢饉等으로 因한 硫安等의 有機質肥料의 增加乃至化成肥料의 增加等으로서 實質的으로는 昨年과 大差업서 別로不足되지는 안흘것이다

農試의事業計畫

卅一日부터協議會

昭和十五年度의 農試의事業計畫을樹立할 道農事試驗場 事業協議會는 三十一日부터 二月三日까지四日間 京城及 水原에서 開催되는데 初日은 午前九時부터 總督府第二會議室에서 開催되엇다 出席者는 總督府에서湯村農林局長 外各關係課長, 技師와 各道農事試驗場長, 技師, 技手等 約百名出席 湯村農林局長의 訓示가잇고 「旱害及그것이끼친바栽培, 養育에關하여將來의對策」과 「參考가될事項」에對한 總督府의 諮問에 對하여 各道의答申이잇슨後 午前의協議를 終了하고 午後는 成績發表가잇고 四時閉會 第二日부터는 水原農試에서 續行된다

農務局長訓示

紀元二千六百年의 光輝잇는 新春에際하여 技術各道農事試驗場主任官의 會同을求하여 昭和十五年度 事業設計協議會를 開催하는 當해서 親히所懷의 一端을 披瀝할 機會를 엇게된 것은 欣快로 하는바이다 생각컨대 聖戰은이미 三年七個月 戰果가크게 擧揚되어 敵政權의 困窮은 益顯著하고支那

仁川正米市場

十五日부터開始?

仁川商業會議所에서는 現物及未着物取引員希望者는 벌써百四十名의多數에 達하여 前부터當局에 이것을認可申請中이데 米穀會社 仁川支店正米市場은 二月一日부터 開始하게되어잇섯스나 아직 取引員의 認可에 接하지못햇스므로 或은數日遲延되어 二月四, 五日頃에는 認可될지도 모르는狀態인데 不遠間開店할수잇을것으로 보인다 또市場當事者의 말에 依하면 늦어도 二月十五日에는 開始하도록 그準備를 進行시키고잇다한다

會社總會一束

東光生絲

東光生絲에서는 第五回定時總會를 三十日午後四時同社에서 開催하고

第一號 第五期營業報告書, 財産目錄, 貸借對照表及損益計算書承認件

第二號 第五期利益金分配案議決件

第三號 取締役監査役選任件

第四號 定款變更에關한件

第五號 元取締役故金佐鎭氏에 對하여退職慰勞金贈呈件

을附議하여 一, 二, 三, 四, 五號案은 原案대로 可決하고 三號案은 取締役 朴興植, 金思演, 李定宰 監査役方台榮 諸氏를選任하엿는바 利益金處分案은 如左하다

◆當期益金 [illegible]

朝鮮製鍊

朝鮮製鍊에서는 第十回定時總會를 三十一日午前十一時부터 府民館에서 開催하고

朝鮮精米

朝鮮精米에서는 第五回定時株主總會를 三十一日午後四時부터 同社에서 開催하고

一、十四年度營業報告, 貸借對照表, 損益計算書, 財産目錄承認件

二、利益金分配案

三、代表取締役及取締役任期滿了에對한改選件

을附議하엿는데 一, 二號는原案可決, 代表取締役과取締役改選은 重任으로決定, 同時에 姊妹會社인 丸一精米全南精米 日本精米製油會社의 總會도 開催하고 이어서 臨時總會를열고 改正에伴한 定款變更件을附議可決하엿다

第一銀行

第一銀行第八十七期定時株主總會는 三十日午後二時부터 東京本店에서開催하고 配當은 年八分据置로決定하고 監査役補缺選擧는 中古賀剛太氏(神戶支店長)를選任하엿스며 取締役小平省三氏는 常務取締役에就任되엇다 同行前期末預金總額은七億九千三百餘萬圓 貸出總額은 七億一千餘萬圓이다

丸計解散總會

二月六日開催

朝鮮內小賣流業同計算機關인 丸計運輸는 드디어 朝鮮運送에서 買收하기로 決定하엿스므로 來二月六日 丸計에서는 臨時株主總會를 開催하고 正式으로 解散을 決議하기로되엿다

朝陽鑛業

朝陽鑛業에서는 三十一日午後一時부터 朝鮮取引所樓上에서 第三回定時總會를 開催하고

朝鮮機械

朝鮮機械製作所에서는 三十一日午前十時부터 仁川 [illegible]

鮮銀副總裁

君島氏發令

【東京電話同盟】朝鮮銀行副總裁被仰付 公森太郎氏의 後任 鮮銀副總裁로 中島銀行頂取君島一郎氏를 起用하기로 決定되엇는데 이人事는 三十一日附로 正式으로 大藏省에서 如左히 發令되엇다

君島一郎

東銀異動

東一銀行에서는 一月二十九日附로써 如左한異動을 發表하엿다

◆本店勤務 韓相龍 命本店勤務

◆廣底支店支配人代理 韓相龍 命廣底支店支配人代理

今日의市勢 三十一日

株式 續落後에 反撥

前場波瀾

今朝도東新五低位百三十七圓一, 鐘新三低位百二十圓丁 鐘新六高인 百六十三圓四 安取十八圓八에寄付된後 鐘新은百三圓三, 鐘紡은百六十二圓丁의新低價를連續되다가 俄然反發을演하여 鐘新은百四圓九, 鐘紡은百六十七圓丁까지 急騰되고 이에따라 東新은百三十六圓으로 反昇되어 低價를示한後 九圓重로 結局東新百三十八圓九 鐘新百三十八圓六 鐘新百六十四圓九 安取十六圓六에 大引

後場反騰

後場은 東新四高인 百三十九圓三 鐘紡一圓一高인 百六十六圓丁 鐘新三低인 百三十圓六에 寄付後 東新은 百四十圓臺를 恢復하엿다

波瀾性漸加

關西地方의 電力不足은 드디어 最後的으로 惡化되어 一部에서는 大工場에 對하여 停電을 實施하게되고 形勢에따라서는 그範圍를 一層擴大하여야할 境遇에이르럿스므로 이로써 全生産은 至大한 反響을 바를것인데 이것을 反映하여 鐘新은 드디어 百圓三의 新低價까지를 割込고 東新도 百三十六圓臺의

▼…日米無條約時代到來를 前하여 米國에는 對日禁輸論이 盛行. 首題하고잇던것과가치 米國內에는 對日禁輸論이 盛行. 米國外交研究所의 調査에 依하면 對日經濟禁輸實施 成이 五一%를 占한다고.

▼…表面的으론 루즈벨트政府의 人道的 情緖의 發現가트나 米國의 極東政策遂行의 道具로할心算.

▼…업다 업다의 物資不足時代.

▼…物資不足의 根因如何는 姑捨코 惡德商人의 跋扈이한 事實.

▼…倉庫에 「스톡」을 가득 채워두고 「업다업다」고 엄살 부리는 者들에겐 嚴罰을 加할일.

㈱…鐘新은 처음에 百圓의 新低價를示하여 百圓大三의 大事件이 實現된것가튼 形勢이다가 俄然四圓臺로 急反撥되어 波瀾激甚◆米內內閣의 施策如何에 不拘코 經濟情勢가 轉換될 前夜에잇스니 波瀾도 當然◆「인플레」냐 「데플레」냐하는問題도 目下情勢로 何方이든 極端한政策은 取하기가 不能할것◆그러나 아프로는 「인플레」抑壓을爲해서는 어느程度의 「데플레」를 助長할수밧게는 別無道理

今日現株市勢 (正午調)

五十錢低로 不勢로呈하엿다

◇朝鮮內株式

鮮銀新	五三·○○	殖銀	三六·○○
朝鐵	五七·五○	京春鐵	五二·○○
朝鮮	六九·○○	同新	四八·五○
金剛電	四三·五○	同四新	五二·○○
京電	五六·○○	西鮮	四五·○○
京電新	五八·○○	漢水電	[illegible]
南電	一三·○○	西電	[illegible]
國產自	五一·○○	中央無盡	[illegible]
無煙炭	三五·○○	製鍊	[illegible]
全羅鑛	三三·○○	小林鑛	[illegible]
막네	三六·○○	三陟開	[illegible]
朝石	三四·○○	朝紡新	[illegible]
東拓	三四·○○	同新	[illegible]

◇內地株式

鐘實	[illegible]	帝人新	[illegible]
日窒	[illegible]	日石	[illegible]
九曹	[illegible]	三菱重	[illegible]
日曹	[illegible]	帝蠶	[illegible]
日産	[illegible]	同新	[illegible]
郵船	[illegible]	同新	[illegible]
商船	[illegible]	東洋紡	[illegible]
航空	[illegible]	小倉新	[illegible]
日立	[illegible]	川崎重	[illegible]
池貝	[illegible]	川崎	[illegible]
神戶製	[illegible]	니겔	[illegible]
日鐵新	[illegible]	水產	[illegible]
淺野	[illegible]		

◇滿支株式

滿鐵	[illegible]	東邦	[illegible]
東亞	[illegible]	錦州	[illegible]
大同	[illegible]	日滿	[illegible]

東京國債

◆甲實四分 一○五、七○ ◆二回四分 一○三、○○ ◆五五 ◆二回四分 一○三、一○ ◆四五 十九年物 一○三、○○ ◆佛貨四

現物往來

現物은처음에 大體로二三圓가량續落되어 다가 淸算의反撥에따라 다시一事에二、三圓反高를示하엿는데 朝鮮物은 今日에이르러 겨우整理되기시작 아직 生産은 全然 休止에 가까운 狀態로 低價를 示하더니 其後에는 漸次漸甚하여가고 잇섯는데 市勢의 波瀾性은 依然하야 [마바라]들은 躊躇되기가 쉬울것이며 左右間에 經濟情勢가 激動期에 잇스니만큼 市勢의 動向은 捕捉하기가 困難하여 長久한眼目으로 臨할必要가 잇슬것이다

今日財界 卅一日

◆米穀(京城, 公定價)

正租(巳)十錢坊主等斤三錢五○ 玄米(巳)十錢坊主等(石)四圓八六 七分搗白米小賣價同四圓○二

◆雜穀(京城, 都賣價公定)

大麥	一六○斤		一六圓三二
裸麥	二二○斤		一九圓五五
粟	二二○斤		三二圓七五
大豆	二四○斤	龍山三等	三二圓八六

◆株 (單位十錢) 今日後止 比前日後止

朝新	三四·四	三六·三
東新	三六·三	三六·二
鐘紡	一六·○	一六·七
鐘新	一○·○	一○·二

◆商品 (先限單位錢·圓) 大阪 今日後止 比前日前止

綿花	休	會
棉布	休	會

東城物價 卅一日

◆白米(一石, 單位圓) 小賣公定價 四五·○○ 七分搗米 小賣公定價(石單位圓) 四五·○○

白米					
大麥		押麥			
粟		白豆			
小豆		[illegible]			

[illegible]

延取 無責買로 一貫

前場無責買 今朝도依然買가 全無이엇다

後場休會 後場은 當限納會로 休場이엇다

分 一九八·七○

海外經濟 三十日

[illegible]

銀行券 三十日

◆朝鮮銀行券 [illegible]

◆日本銀行券 [illegible]

金利手形交換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東京手形交換高 [illegible]

◆大阪手形交換高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鐵油粕·麥粉

◆阪神鐵粕 [illegible]

◆阪神鐵油 [illegible]

◆日本麥粉市勢 [illegible]

對外爲替

對米 百圓에 二三弗十六分七 對英 一圓에 一志二片ㄱ六分ㄱ 以上朝鮮銀行賣

株式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朝取短期取組◆ 合計 三六·三○枚 累計 一○二·五○○枚

◆朝定代月日步取組◆ [illegible]

許免府督總

金買銀

社會買責銀金

京城南大門通一ノ九五 (黃金町入口)

受引·金料底吹灰·金化靑

三國志

韓龍雲 譯

熊超 畵

【85】

孫策의蹶起 (七)

왕랑이 그말을 의지하여 회계성을 굳게지키고 나지아니하니 손책이 수일을두고 연하여 쳐되, 능히 공을이루지 못하는지라 이에 여러장수와 의론하니 손정이 말하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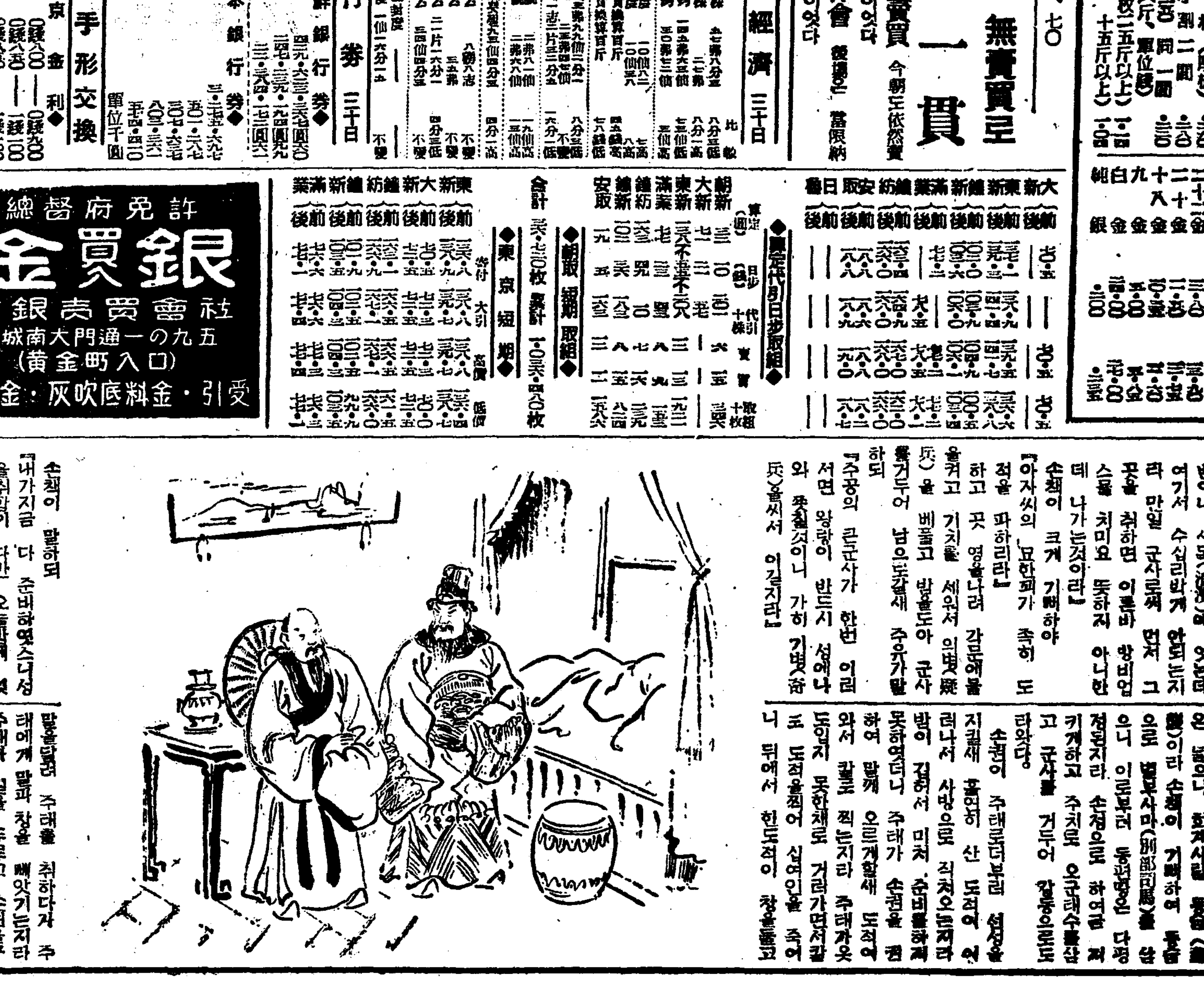
「왕랑이 굳은것을 잇고 성을 지키니 졸연히 치기가 어렵고 회계의 돈과 양식이 태반이나 사독(査瀆)에 잇는데 여기서 수십리밧게 안되는지라 만일 군사로써 먼저 그곳을 취하면 이른바 방비업스믈 치미요 뜻하지 아니한데 나가는것이라」

손책이 크게 기뻐하야 「아자씨의 묘한꾀가 족히 도적을 파하리라」

하고 곳 영을나려 각문에불을켜고 기치를 세워서 의병(疑兵)을 베풀고 밤을도아 군사를거두어 남으로갈새 주유가 말하되

「주공의 큰군사가 한번 이러서면 왕랑이 반드시 성에나와 쫓칠것이니 가히 기병(奇兵)을써서 이길지라」

[illegible]



손책이 말하되 「내가지금 다 준비하엿스니 다만 오늘밤에 엿볼뿐이라」 하고 군마를 어느켜 행하엿다.

왕랑이 손책의 군마가 물러가는 소식을 듯고 스스로 여러사람을 이끌고 다락위에올라 바라보니 성아래에 연기와 불이 잇고 기치가 조금도 어지럽지 아니한지라 마음에 의심하더니 주흔이 말하되

「손책이 다러나면서 특별히 저런 계교를써서 우리로 하야금 의심하게 한것이니 가히 군사를내어 엄습할지로다」

엄백호가 말하되 「이번에 손책이 가는것이 반드시 사독으로 가는것이니 내가 주장군으로 더부러 군사를 이끌고 쫓치리라」

왕랑이 말하되 「사독은 나의 양식을둔곳이라 방어하지 아니할수가 업스니 그대가 군사를이끌고 먼저가면 내가 뒤를 따라 접응하리라」

엄백호가 주흔으로 더부러 군사오천을 거느리고 성에나가 쫓칠새 초경이 가까워서 이십여리를 가더니 홀연히 저문숲속에 북소리가 이러나며 횃불이 일제히 밝는지라 엄백호가 크게 놀래어 말을돌려 나갈새 한장수가 압흘 막거늘 불빛에 비처보니 이는 손책이라 주흔이 칼을 춤추며 와서 대적하다가 손책의창에 찔리어 죽으매 남은 무리는 다 항복하는지라 엄백호는 한길을 어더서 여항을 바라고 다라낫다.

왕랑은 압에 군사가 이미 패하엿다는 말을듯고 감히 성으로 드러가지못하고 부하를이끌고 해우(海隅)로 다라낫다.

손책이 도로 도라와 대세를 타서 성을취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더니 하루를 지나지 못하여 한사람이 엄백호의 머리를 가지고와서 손책의 군중에 드리거늘 손책이 그사람을보니 신장이 여덟자요 넓은 모지고 입은 넓으니 회계사람 동습(董襲)이라 손책이 기뻐하여 별부사마(別部司馬)를 삼으니 이로부터 동편이 다 평정된지라 손정으로 하여금 지키게하고 주치로 오군태수를 삼고 군사를 거두어 강동으로 도라왓다.

손권이 주태로더부러 선성을 지킬새 홀연히 산 도적이 사방으로 이러나서 각처오는지라 때가 밤이 깁허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엿더니 주태가 손권을 권하여 말께 오르게할새 도적이 와서 칼로 찍는지라 주태가 옷도입지 못한채로 거리가면서 칼로 도적을죽여 십여인을 죽이니 뒤에서 한도적이 창을들고

말을달려 주태를 취하다가 주태에게 말과 창을 빼앗기는지라 주태가 길을 뚜루고 손권을 구해내니 남은 도적은 멀리도망하엿스나 주태는 몸에 열두창을 맛저서 몸름이 경각에잇는지라 손책이 듯고 크게놀래니 동습이 말하되

「내가 일즉이 바다 도적을대적하다가 몸에 두어창을 마젓더니 회계의 아전 우번이 한의원을 천거하여 반달만에 나엇노라」

「우번은 우중상이 아니냐」

「그는 어진선비 대자 마땅히 쓰리라」

「그러하다」

하고 장소로하여금 동습과 가치가서 우번을 청하니 우번이 이르는지라 손책이 예로써 대접하고 배하여 공조(功曹)를 삼고 인하여 의원 구할뜻을 말하니 우번이 말하되

「그사람은 패국초군(沛國譙郡) 사람 화타(華陀)니 자는 원화(元化)니 참 당세의 귀신가튼 의원이라 마땅히 다리고 와서 뵈이리라」

하고 가더니 하루만에 다려고 오는지라 손책이 그사람을보니 동안학발(童顔鶴髮)이요 표연히 세상에 뛰어난 모양이 잇는지라 놉흔 손님으로 대접하고 주태의 상한곳을 보여니 화타가

「이것은 쉬운일이라」

하고 약을써서 한달만에 나으니 손책이 크게 기뻐하여 화타를 두터이 사례하고 군사를 나어가 산 도적을 제하니 강남이 다 평정되엇다.